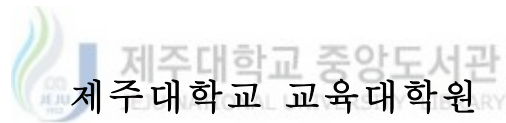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 성격 연구

지도교수 안 성 수



국어교육전공

정 애 경

2006년 8월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 성격 연구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애경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 성격 연구

정 에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성수

이 연구는 박완서의 소설 작품 중에서 10년 주기로 발표된 『나목』,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남자네 집』을 텍스트로 하여 여주인공의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박완서 소설을 통해서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여성의 길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시모어 채트먼의 “특성들의 패러다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적 자질”인 특성을 종합 계열화 하는 패러다임 분류법을 성격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외유내강형으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은 도전쟁취형으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그녀’는 연민형으로, 그리고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수용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네 작품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격 창조 방식과 성격 유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인물의 전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의 성격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네 인물 유형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혼합하거나 절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의 인물들이 전통의 맥락 속에서 한국 여인의 전형성을 찾아형상화 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박완서는 그녀의 소설을 통해서 생활력이 강한 냉소적 성격에서 당당한 예고적 성격과 마음이 약하고 정에 여린 성격을 거쳐, 낭만적인 수피예고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여인상을 통해 나름대로 바람직한 여인상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주어진 환경과 보수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진보적인 인간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대상과 방법	5
II. 작가의 문학관	8
III. 소설의 구조와 인물의 성격	19
1. 『나목』	22
2.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30
3. 「너무도 쓸쓸한 당신」	38
4. 『그 남자네 집』	45
IV. 성격 창조 방식과 특성 비교	53
1. 성격 창조 방식	53
2. 성격 특성 비교	56
V. 결론	64
참고문헌	68
<Abstract>	72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 소설	6
<표2> 대상 소설의 성격 비교분석표	60



그림 목 차

<그림1> 시모어 채트먼의 특성 계열도	21
<그림2> 『나목』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25
<그림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33
<그림4>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41
<그림5> 『그 남자네 집』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48



I. 서론

1. 연구목적

문학은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히, 소설은 언어를 매체로 인간의 현실세계와 경험을 재현한 것으로서 작가의 허구적 창조인 동시에 현실의 모방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설가는 독특한 개성으로 인생과 사회의 단면을 의미 있게 제시하는 사람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설작품은 작가 정신의 특수한 반영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특유의 관찰력을 동원하여 가정과 사회문제를 관심 있게 다룬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70년 동아일보사가 모집한 '여성동아 장편소설'에 「나목」이 당선됨으로써, 40세가 넘는 나이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을 발표함으로써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박완서의 소설 속에는 자신의 생애가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의미와 '공모자'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자전적 소설이란 고백체 소설의 형식으로서 진실하긴 하나 자기 합리화(소영웅주의)의 덫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주인공과 작가 자신이 어떤 사건의 공모자일 때, 그 작가는 독자에게 상당한 권리와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¹⁾

박완서의 작품은 험량한 여성성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자본주의와 도시문명을

1) 김윤식(1995), 『김윤식의 소설 읽기』, 열림원, p.363.

날카롭게 비판하는 세대문학, 근대의 서민 역사를 재조명하는 풍속문학,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해부하는 분단문학 등을 주제로 다루어 오면서 많은 문학도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모순을 비롯하여 물질주의와 여성해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심을 드러낸다.²⁾

그 중에서도 박완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성문제를 다룬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주의 비평가들로부터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개성 있는 여주인공들을 통하여 한국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문학관(소설관)과 작품세계 등을 살펴본 뒤, 10년 주기로 발표된 4편의 텍스트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격을 분석, 비교하여 그 유형적 특성을 살펴려고 한다. 그리고 단순한 인물 분석의 수준을 벗어나 바람직한 인간상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도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적 여인상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박완서 문학을 통해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데도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 연구사 검토

박완서는 등단 이후 30여 년 동안 꾸준한 창작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문예지 비평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점차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이 90여 편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박완서 문학은 식민지 시대를 관통하는 유년의 기억과 오빠에 대한 애착, 엄마와의 갈등에서 보이는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보존 본능만을 남겨준 전쟁과 분단, 개발과 독재 등의 역사적 과정들에 대한 작가의 경험

2) 한상희(1999), "박완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문학은 자신의 이야기이자 당대인들의 보편적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대중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의 대중성은 보편적인 도덕적 상상력에 기초를 둬으로써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로 일반화할 수 있는 비판의식 또한 담고 있다.

이러한 박완서 작품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6.25 전쟁 체험³⁾과 분단 문제 및 그 극복에 주목한 연구들이다.⁴⁾ 백지연은 박완서의 6.25전쟁 체험 소설을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로 표현하면서, 그녀에게 문학은 악몽의 체험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게 하는 유일무이의 수단⁵⁾이었다고 평가한다.

임규찬은 ‘그녀의 6.25에 대한 문학화 방식은 실제 개인의 일상적 삶에 사회의 권력적 힘, 이데올로기 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한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문제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⁶⁾고 평가한다.

둘째, 중산층의 속물근성과 삶의 허위성 고발, 현대인의 이기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룬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⁷⁾ 신철하는 ‘박완서의 문학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 3) 박완서가 전쟁체험을 소설화한 작품으로는 『나무』, 『엄마의 말뚝』 연작,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목마른 계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제이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등이 있다.
- 4) 안관진(1999), “박완서 장편소설연구 :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영(2000), “박완서 소설 연구 : 주로 그의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병로(1993),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의 승화,” 『박완서 문학상 수상작품집』, 훈민정음.
 황광수(1985),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 5) 백지연(2004), “폐허(廢墟) 속의 성장,”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pp.259-260.
- 6) 임규찬(2004), “박완서와 6.25 체험 :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p.128.
- 7) 김기숙(1994), “박완서 소설연구 : 현실반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식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소정(2001), “박완서 소설연구 : 도시문명과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민(2002), “박완서 소설 연구 : 도시체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훈(1980),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덧,” 『현대문학』.
 이동하(1991),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박완서론』, 삼인행.
 최두연(1999), “박완서 소설연구 : 산업사회의 변동과 소설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교

드러내며, 중간계급의 비판의식을 개연성 있게 설파하고, 한 걸음 나아가 진정한 시민의식이 부재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양심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정직한 직시를 보이는 문학'이라고 본다.⁸⁾ 이광민은 박완서가 중산층의 속물근성과 이기주의, 허위성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작품화하면서 작중인물들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면서 작가의 문제의식으로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⁹⁾

셋째,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현실과 자의식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¹⁰⁾ 우찬제는 '박완서의 미망 읽기'란 글을 통해 박완서 문학은 험량한 여성문학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속악한 자본주의와 도시문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세태문학, 근대의 서민 역사를 재조명하는 풍속문학,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해부하는 분단문학 등 넓은 주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¹¹⁾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박완서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제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형상화시켰다면, 그 주인공들의 성격유형과 성격창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신철하(2004), “이야기와 욕망,”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p.252.

9) 이광민(2002), 진계논문, p.5.

10) 김명호(1990), “여성해방 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윤송아(1999),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창호(1992), “여성의 글쓰기와 자기발견의 서사구조,”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초영((2001), “박완서 소설연구 :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미(2000), “박완서 소설의 여성문제 인식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

강경숙(2003), “박완서의 페미니즘소설 연구 : 80년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희(2003),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 정체성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

장문숙(2003), “박완서 소설의 근대적 여성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니(2004), “여성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 박완서-오정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희(2002), “박완서의 페미니즘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하(1999), “박완서 소설연구: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

11) 우찬제(2004), “<미망(迷妄)><미망(彌望)><미망(未忘)>, 그 상호텍스트성 : 박완서 「미망」 읽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p.327.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박완서가 10년 주기로 발표한 4편의 장,단편 텍스트를 바탕으로 여주인공의 성격 유형과 창조방식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여성의 보편적 기질과 성격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박완서가 소설쓰기를 통해 보여주는 관심분야는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주를 이루는 것은 6.25전쟁과 민족분단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다음으로 1970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부작용으로 드러난 물질만능주의와 생명 경시의 사회풍조,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전통적인 가부장제도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녀의 30여 년 소설사에서 하나의 흐름과 문학적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장 큰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그의 작품세계는 사회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 외에도 데뷔작에서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성차별과 억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²⁾

따라서 그녀의 소설에서 어떤 성격의 여주인공들이 가족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주체화되어 가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 여주인공이 성(性)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고, 여주인공이 심리적인 개별화와 자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인식하는 과정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분석 텍스트를 한정하였다.

12) 홍지화(2001),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박완서 소설 연구 : 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표1>. 연구대상 소설

저작연도	제 목	주인공
1970	『나목』」	이경
1989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차문경
1997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녀
2004	『그 남자네 집』	나

이제, 위 작품들을 분석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다소의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0년도에 발표된 『나목(裸木)』은 박완서의 데뷔작이자 그녀의 작품세계가 집약된 작품이다. 이것은 6·25를 배경으로 한 작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의 기록이면서도, 가부장제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보다 불평등하게 대우 받는 여성문제를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자기반성과 비판의식의 눈으로 바라본 작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1989년에 『여성신문』에 연재되어 페미니즘 열풍을 몰고 왔던 대표작이다. 미혼모의 출산과 그에 따르는 양육문제, 호적문제 등 법률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페미니즘 문학으로서도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 여성 주인공이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상을 설득력 있게 작품화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다.

셋째,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초로(初老)의 여주인공들을 등장시켜 나이의 변화에 따른 여주인공의 성격 변화를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마음이 여리고, 정에 약한 여주인공의 성격과 금권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비록, 단편이지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그 남자네 집』은 박완서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장편소설로서 작가의

20대에 경험한 첫사랑을 고스란히 되살려놓은 연애소설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주인공의 모습과 전쟁 중에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텍스트로 선정된 작품들은 박완서 소설 중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형상화시킨 여주인공들의 성격이 비교적 선명한 개성과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작가가 형상화한 작중인물(여주인공)의 성격적 특성과 전형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역사주의적 방법과 전기적 고찰, 그리고 구조주의 방식 등을 절충하여 분석과 설명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작가가 작품에 반영하였다고 보는 시대·사회적 상황과 그녀의 문학관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면서, 텍스트에 내재한 성격적 특성을 구조주의 방식을 통해서 추출하여 유형화 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모어 채트먼이 제의한 인물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화 하는 페러다임 분석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은 텍스트의 의미망을 해체시켜 페러프레이즈 한 뒤, 인물들이 행동과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전체 특성들을 모아 페러다임화 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귀납해 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적 자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인물의 성격 파악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II. 작가의 문학관

일반적으로, 문학관이란 작가가 지니고 있는 문학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나 안목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 작가의 문학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작품 분석 외에도, 먼저 그의 문학관 형성에 영향을 준 성장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박완서는 어린 시절, 당시로서는 신세대 이야기꾼인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딸을 신여성으로 키우려는 억척스러웠던 분위기속에서 자랐다.

박완서는 20세 때 6.25를 겪게 되는데 그 경험들을 소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길 쏟아놓길 단념 못 하고 있었다. 어떡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까, 어떡하면 사람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사람들로 부터 동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심심하면 속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의 비위까지 어림짐작으로 맞춰가며 요모조모 내 이야길 꾸며 갔다.’¹³⁾라고 소설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진솔한 자전적인 부분들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다.

흔히, 소설이 감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파토스(pathos)의 면에 호소하는 것¹⁴⁾이라고 한다면 소설을 창조하는 작가는 소설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완서의 문학관은 그녀의 비통한 가족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작가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 사상 등은 그가 창작한 문학작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완서의 소설은 체험적

13) 박완서(1992), 『박완서 문학 앨범』, 웅진출판, p.128.

14) 송 면(1985), 『소설미학』, 문학과 지성사, p.21.

사실을 떼어놓고는 논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부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별세로 삼촌이 아버지를 대신했고, 8세 때인 1938년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이사와 살게 되었으며, 매동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녀는 1944년 숙명여고에 입학하였으나 1945년 소개령(疎開令)이 내려져 개성으로 이사하면서 호수돈 여고로 전학한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아 서울로 돌아와 학교를 계속 다녔으며, 여중 5학년 때 담임을 맡은 소설가 박노갑 선생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전쟁으로 휴학하였고, 또 전쟁 중에 오빠와 숙부를 잃게 된다. 그녀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미군 부대에 취직, 미8군 PX(동화백화점, 곧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의 초상화부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된다.

1953년 호영진(扈榮鎭)과 결혼하여 이후 1남 4녀의 자녀를 두었고, 1970년 『나목(裸木)』으로 데뷔한다. 1975년 남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옥바라지를 하였으며, 「도시의 흥년」을 『문학사상』에 연재하면서 이때부터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1980년 「그 가을의 사흘 동안」으로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으며, 1981년 「엄마의 말뚝·1」로 제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다. 1990년에는 『미망(未忘)』으로 대한민국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1991년 회갑 기념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문학과지성사)와 콩트집 『나의 아름다운 이웃』(작가정신) 등을 출간한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그녀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사), 『박완서 문학앨범』(웅진출판사)을 출간하는 등 다수의 장·단편소설과 창작동화집, 수필집 등을 출간하였으며, 제1회 한무숙문학상, 제5회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한다.

2000년에는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을, 2004년에는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을 출간했으며, 2006년에는 호암예술상을 수상했다.

이제 박완서의 문학관(소설관)을 작품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 시대별로 몇몇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970년대 소설

박완서가 자전적 요소를 소설화했다는 사실은 작가 자신이 밝힐 정도로 명백하다.

어머니는 기억의 파편을 모아 생명을 다시 넣어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 꾸민 부분과 꾸미지 않은 부분을 빼와 살을 바르듯 갈릴 수는 없지만 나는 그 꾸미지 않은 부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¹⁵⁾

위의 인용 부분은 박완서의 큰딸이 어머니의 소설이 자전적 요소로 쓰여졌음을 밝힌 대목이다. 여기서 박완서는 소설 창작 시에 허구보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꾸미지 않은 사실성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렁이 울음소리」¹⁶⁾는 “남편은 TV채널 돌리는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로 시작된다. 중년 여성의 시각으로 야망도 패기도 잃은 채 소시민적 삶에 안주하고 있는 어느 중견 은행원인 남편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남편의 속물근성을 파헤치는 아내의 의식은 안전하고 무사태평한 것이 결코 행복한 부부가 아님을 프로이드의 심층심리의 논리를 통해 보여준다. 행복은 외적 억압의 대상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의 자존에 대한 각성에서 감지된다. 따라서 일상성의 안일함을 타파하며 남자의 무력한 삶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딸꾹질을 통해 심리적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다.

「닭은 방들」¹⁷⁾에서는 아파트 생활의 획일화, 규격화, 내면생활의 유사성까지 고발한다. 아파트 생활의 심심함을 못 이겨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것은 생동

15) 박완서(1992), 전계서, p.32

16) 박완서, 「지렁이 울음소리」, 『신동아』, 1973. 7.

17) 박완서, 「닭은 방들」, 『나남문학선 8』, 나남출판사, 1974. 7.

감 넘치는 삶의 추구가 희박해짐으로써 드러나는 존재론적 위기성의 자각과 남과 닮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잃어버리는 몰개성적 삶의 양식을 비판한다.

「포말의 집」 18)에서도 아파트 이웃간의 위선적 교양과 비인간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일상성의 권태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간음의 모티브가 등장하며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비인간적인 부분을 신랄히 고발한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9)에서는 6·25전쟁으로 피난을 하던 중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머니는 딸이 양갈보 되기를 바랐던 현실, 세 번이나 시집을 가면서 목격한 물질 추구에만 급급하던 남편들, 귀부인의 포즈만을 배우고, 알맹이는 잃어버린 여고 동창생 등을 통하여 인간의 예절과 최소한의 염치도 상실한 채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도시인들의 허구에 찬 생활을 고발하고 있다. 이 소설 역시 여성의 시각으로 세태를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속물근성에 대한 비판은 무력한 남성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자 했던 정치적 허무주의와 자본주의의 허망함이 안겨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 20)에서는 더욱 자본주의의 물질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혼을 통하여 신분상승과 부의 분배과정에 편승하려는 도시 여성을 창조해낸다. 신분 상승을 노리는 세 딸을 통하여 사회의 허위의식과 속물주의적 근성을 나타내며, 이 모순을 전체 사회구조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할머니-어머니-딸의 여성 3대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는 「도시의 흥년」 21)은 무능한 아버지, 의지박약한 아들에 대한 비판이다. 가난하고 직장도 없는 사내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는 수희에 대한 모멸은 홀어미의 가난한 외아들인 그가 고시에 합격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침과 존경으로 바뀌는, 이른바 계산이 앞서는 남녀간의 애정관과 권력지향 주의를 폭로한다. 그리고 일류병의 허세와 비굴 등

18) 박완서, 「포말의 집」,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74. 7.

19) 박완서(1995),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동아출판사.

20) 박완서(1997), 『휘청거리는 오후』, 창작과 비평사.

21) 박완서(1993), 「도시의 흥년」, 『박완서 소설전집2·3』, 세계사.

권력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낳은 한국 근대화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1970년대의 박완서의 소설의 특징은 한마디로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체험과 분단 문제 및 극복에 대한 소설과 자본주의의 물질사상으로 인한 현대인의 이기성을 비판하는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의 문학이 과거지향적 가치관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1980년대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²²⁾은 소파수술 전문가인 여의사가 자신이 죽인 수많은 아기들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며 인간생명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깨우침을 들려주는 작품이다.

「엄마의 말뚝 · I」²³⁾은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여덟 살 난 어린 딸과 그 어린 딸을 신여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처로 나온 엄마가 서울에서 문 안이 아닌 문 밖 꼭대기에 터를 잡고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이야기이며, 「엄마의 말뚝 · II」²⁴⁾는 아버지 없는 엄마의 억척스러운 삶에 같이 살던 딸은 엄마가 되어 자신의 엄마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억척 모성으로서 살았던 엄마의 노년을 들려준다. 서울 변두리에 집을 마련한 엄마는 집이라는 말뚝을 박고 그 반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엄마가 된 딸의 이야기와 억척 모성의 이야기는 딸의 삶에 어머니의 삶이 중첩되면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고집불통처럼 매여 사는 한국적 여성의 비주체적 삶과 완고한 사회적 구도를 예시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²⁵⁾은 편파적이고 자학적인 부덕이라는 악덕논리에 대한 신랄한 묘사로 현모양처형의 허위성을 파괴하고 있다. 현모양처의 역할에 순종

22) 박완서(1985), 『그 가을의 사흘 동안』(단편선집), 나남.

23) 박완서(1994),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박완서 소설전집 7)』, 세계사.

24) 박완서(1994), 『엄마의 말뚝 II』, 『엄마의 말뚝 (박완서 소설전집 7)』, 세계사.

25) 박완서(1980),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하던 한 여성이 상식이하의 비도덕적이고 전근대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몇 차례 부당한 경험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남녀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남녀가 다 함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지향하려는 의도의 소설이다.

박완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함으로써 대중 지향적 소설적 특성을 내보이기 시작한다. 첫 여성문제 소설인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이 대안 부제의 문제 제기였다면, 5년 후에 발표된 『서 있는 여자』²⁶⁾에서는 여성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그녀는 『서 있는 여자』의 후기에서 자신의 결혼관²⁷⁾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나 없나’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 있는 여자』에서의 문제제기는 평등한 결혼관이 평등한 부부관계의 시도이며, 결혼이란 꼭 해야 하는가, 독신으로 사는 여성은 불행한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꼭 지켜야 하나 등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은 서있음으로써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 왔으므로, 서 있는 자세는 진취적이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상징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자세는 안정되어 있지 않고 힘들고 불편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²⁸⁾는 작가가 밝힌 대로 ‘한 평범한 여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꿈을 못 버린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쪽에서 힘겹게 승소하여 자기의 권리를 지켜낸다는 이야기로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성차별의 벽과 사회제도의 관습적 보수성에

26) 박완서(1995), 『서있는 여자(박완서 소설전집 11)』, 세계사.

27) 박완서(1995), 전계서, 세계사. ‘내가 이 소설을 통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나 없나 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나 없나 라는 내 판엔 좀 새로운 문제였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공 연지는 그 문제에 일찌감치 눈뜬 똑똑한 여자였지만, 평등을 자신이 앞으로 애써 지혜롭고 고되게 획득해 나갈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떠도는 결혼’에의 소설적 응답이라는 부제가 있는 『서 있는 여자』의 후기

28) 박완서(1989),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p.288.

대한 여성권리 선언의 의미를 띠고 있다.

198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여성주의 문학이 널리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문제를 소설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시대이다. 민주주의 이념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능력이 커진 현대에서, 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은 표면적으로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박완서의 80년대 소설은 남녀간의 갈등과 사회제도의 관습적 보수성에 대한 시대적 고발을 담고 있다.

3) 1990년대 소설

「미망(未忘)」은 개성 부호 전씨 일가를 소재로 한 가족사 소설이다. 5대에 걸친 각 세대의 인물들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침하는 소설로서, 역사의 재구성이나 역사적 사실의 확인보다는 지나간 한 시대의 개성상인들의 삶을 재창조해 내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이 담겨 있는 소설이다.

소설로 살려낸 개성의 지역성과 상인정신은 전처만과 그의 장손녀 태임의 삶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태임의 삶은 시대적 삶의 적응양상이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적 가족주의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한계성으로 보여주며, 한의 운명적 세계로 함몰하고 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²⁹⁾는 여성의 존재가 단지 출산이라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인큐베이터’에 비유하고 있다.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대물림의 희생자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한다. 딸의 생명을 냉정히 지워 버린 끝에 얻은 아들은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여성이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이기에 오히려, 반성적 시각을 드러내는 여성적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29) 박완서(1995), 「꿈꾸는 인큐베이터」,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동아출판사.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³⁰⁾은 시위 도중에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아들들 둔 엄마가 자신의 큰 형님과 전화로 수다를 떠는 전형적인 주부의 담화형식 소설이다. 사람의 속물적이고 허위적인 속내와 이기적인 욕망을 가차 없이 들춰내려고 축각을 곤두세우던 박완서 소설의 시선은 가족을 돌보는 지루한 일상을 힘으로 하여 죽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생명을 새롭게 조명한다.

1992년 이후에는 자신의 체험적 진실을 소설화하여 자전적 장편소설을 발표하는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1995년도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 전자는 작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대학에 입학하고 6.25를 체험하게 되는 스무 살 때까지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1951년 1.4 후퇴부터 1953년 결혼할 때까지의 이야기이다. 이 장편소설들은 생활 풍속사를 겸한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해가며 겪어야 했던 체험을 회상하고 처절하게 증언한 성장소설로서, 현대인의 야만성과 맹목적 사상성에 파괴된 민족성의 내부를 침착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³¹⁾는 강한 생활력과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남편 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역척스레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 화자인 주인공 자신과 가족의 기둥인 오빠가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여 결국,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젊은 날의 고뇌에 대한 논리를 기록한 개인사이면서도 당대 한국의 생활사에 대한 증언적 호소이기도 하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³²⁾는 동산을 갈아뭇개고 시멘트 건물을 짓는 불도저의 힘으로 상징되는 무지막지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모질긴 오욕의 현장과 시대를 기억 속에서 재생함으로써 어떻게 자연과 합일하면서 인간적 자존을 유지하고 형성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두 편의 자전적 장편소설은 박완서 소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30) 박완서(1994),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박완서 소설전집 5)』, 문학동네.

31) 박완서(199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32) 박완서(1995),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창작집인 『너무도 쓸쓸한 당신』³³⁾에 오면 박완서의 소설은 내밀한 향기와 밖으로 나타나는 웃음과 폭넓은 일상성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마른 꽃」³⁴⁾은 노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노년의 심리와 젊은이들의 이기주의가 일상의 삶 속에서 대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사랑이란 서정적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노년의 관계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짐승 같은 정육의 세월을 함께 나누어진 노년의 정 같은 수준에서 차원 높게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환각의 나비」³⁵⁾는 칠순 노인의 방황과 회귀를 딸의 시선으로 추적한 소설이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가족애와 노인의 치매현상, 그리고 젊은이들의 봉공의 자세를 고발하는 노인문제 소설이다.

「참을 수 없는 비밀」³⁶⁾은 젊은 날에 좋아하던 남자가 여울목에서 빠져죽고 그의 차가운 입술을 열렬히 빨아 그를 환생시키고자 한 송장과의 차가운 입맞춤이 결혼 후에도 가출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남자를 죽게 한 젊은 날의 쓰라린 기억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치솟아 오르는 이상심리를 다루고 있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³⁷⁾는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난봉끼를 풍류와 여유로 이해하는 딸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인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아들의 졸업식에 처가식구들의 선물공세에 소외되는 시골출신의 퇴직한 교장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 노년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이다.

김용택의 시에서 제목을 따온 「그 여자네 집」³⁸⁾은 만득이와 곱단이의 순진 무구한 사랑을 설화처럼 보여준 소설이다.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정신대를 기피하며 살아남은 자의 한도 고발하고 있다.

33) 박완서(1998), 「너무도 쓸쓸한 당신」,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34) 박완서(1998), 「마른 꽃」,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35) 박완서(1998), 「환각의 나비」,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36) 박완서(1998), 「참을 수 없는 비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37) 박완서(1998),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38) 박완서(1998), 「그 여자네 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꽃잎 속의 가시」³⁹⁾는 30년의 미국 이민살이에서 장손의 결혼식 날 가방에서 나온 수의를 내 보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민사의 한 단면과 현대 며느리의 시어머니 모시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의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족사를 통한 모성적 인간주의와 그 생명성에 그 중심을 두면서 성차별을 비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4) 2000년대 소설

2000년대에 들어서 박완서는 두 편의 장편소설을 출간한다. 『아주 오래된 농담』과 『그 남자네 집』이 그것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⁴⁰⁾은 작가의 평가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즉, 작가는 나이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작품으로 인정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작품으로 평가받는 존재라는 진리를 확연히 깨닫게 한다. 이 소설은 우리들이 끈질기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가족의 위선을 통렬하게 고발하는 가족 서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작가는 현대인들이 다양한 가족관계가 출현하는 시대, 가족관계의 다양한 소통방법이 중요하게 인정받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족관계와 그 가족관계를 장악하는 독선적 가장들이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우리들의 관습화된 관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근대의 기획과 형성, 사회구조의 변동과 해체, 거대 이념의 몰락과 대안 이념의 모색 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가족을 제외한 성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박완서의 열다섯 번째 장편소설인 『그 남자네 집』은 2004년 10월에 발표된

39) 박완서(1998), 「꽃잎 속의 가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40) 박완서(2000),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사.

작품으로 <문학과 사회>에 발표한 동명 단편 「그 남자네 집」에 기초한 소설이다. 2000년 이후 4년 만에 내놓은 작품으로 그녀가 20대에 경험한 첫사랑을 고스란히 되살려놓은 연애소설이다. 이 소설은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이념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여주인공은 한국 전쟁 뒤 50년대의 피폐한 상황을 이겨내고 생계를 유지했던 여성들의 억척스러움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살벌했던 전쟁 통해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나를 말하고 있는 페미니즘적 소설이자 전후 시대의 풍속사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 문학에서 삶과 문학의 관계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형식으로 개입한다. 달리 말하자면 박완서의 작품에서 경험이란 그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이야기이자,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보편적인 그녀의 이야기인 셈이다. 결국 박완서 문학에서 경험이란 나와 타자가 만나는 공간이자 타자에 대한 참조를 통해 구성되는 나의 정체성의 출처라고 할 수 있다.⁴¹⁾

따라서 박완서의 문학관은 전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생성된 생명주의와 페미니즘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현대문명의 인간소외와 정치적·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과 저항의식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사회의 기형적 문명생활이 낳은 인간소외와 소시민적 편견의 주위에 의한 자기기만, 관료사회의 횡포와 억압받는 여성문제를 비롯한 약한 자들의 인권문제 등 사회의 갖가지 문제들을 섬세하고 신랄한 필치로 일관된 철학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41) 권명아(2000), 전계서, p.43.

Ⅲ. 소설의 구조와 인물의 성격

소설은 인간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예술이다. 따라서, 소설에 대한 주요한 관심은 결국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실상과 성격의 유형적 의미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소설에 있어서 행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작가는 그 인간을 통해 주체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어울리는 인간을 창조하고 성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작업은 한 마디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 작업에 다름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하는 서술 속의 주체는 ‘누가’라는 인물이며, 그 인물은 작품에서 행위나 사건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개성 있는 기질과 속성은 물론 전형적인 성격까지 함유하게 된다.

인물(character)이란 용어는 ‘작중인물’과 ‘성격’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해 왔다. 작중인물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 즉,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을 말한다 면, ‘성격’은 그 인물이 가지는 내적 속성인 관심, 욕망, 정서, 도덕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소설론에서 말하는 인물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용모나 풍채와 같은 외적 개념이 아니고, 그 인물의 개성이나 내적 속성을 가리키는 성격이라는 개념을 지칭한다.⁴²⁾

따라서 소설 속의 인물은 독특한 개성이나 전형성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물(people)이란 말과 성격(character)이란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창작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는 행위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은 작품 구성의 주요 요소이자 주제를 구현해 나가는 주체로서, 소

42) 송명희(2006),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사상사, pp.197-198.

설의 구조와 여타의 요소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성격으로 구축된다. 소설을 이루는 배경이나 시간, 분위기, 사상 등도 궁극에 가서는 작중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물은 일정한 사상이나 감정의 그릇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소설 속 사건을 전개시키는 힘의 축이 되기도 한다.⁴³⁾

그러나 여기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작가가 비밀스럽게 형상화 해놓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추출하느냐의 문제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완서 소설 속의 여주인공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 곧, 한국 현대 여성의 정체성과 전형적 의미를 이해하는 첩경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시모어 채트먼⁴⁴⁾이 제기한 인물들이 내재한 특성들의 패러다임의 추출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은 그의 말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적 자질”로서 인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명료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느낌, 분위기, 생각, 순간적인 동기, 태도 등과 같은 순간적인 심리학적 현상들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채트먼에게 인물의 특성들의 집합으로서의 패러다임은 전체적인 특성의 집합으로서 주인공의 행위들을 설명하는 분류목록이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건들과는 구별된다. 특성들은 시간적 사슬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시간의 전체 혹은 일부분과 공존하면서 전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보편적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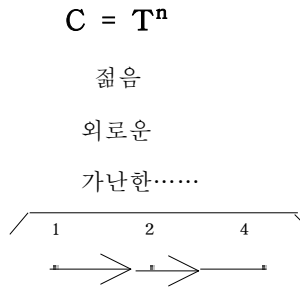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선, 대상 작품의 성격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텍스트의 의미망을 해체시켜 패러프레이즈 하고, 주요 사건에 나타나는 행동 특성들을 추출하여 패러다임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⁴⁵⁾

43) 홍성암(1996), 전제서, p.128.

44)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Cornel, 1978), 김경수 역(1990), 민음사. pp.154-157.

45) 채트먼의 이론을 정밀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적용방법과 원리를 정리한 안성수의 『소설서사의 논

이제, 인물의 성격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과 행동특성, 사건의 연쇄 속에서 특성들의 집합을 계열화 시켜 나타내는 채트면의 도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시모어 채트면의 특성 계열

여기서 C는 인물이며, T^n 는 주어진 특성으로 계열적이며 매개변수적이다. 젊음, 외로운, 가난한.....등의 형용사와 술어는 사건 속에 내재한 인물들이 함유한 자질들로서 전체 작품 속에서 추출된 수직적 교집합의 산출 결과이다. 그리고 화살표는 사건들(점 1, 2, 4)의 발생 지점을 지시하며, 대괄호는 존재자들을 이야기의 시간적인 연쇄와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성 계열이 T^n 으로 표시된 것은 그것의 끝없는 개방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나중에 독자들이 독서에서 스스로를 암시할 수 있는 지각되지 않는 특성들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특성 계열이 추가로 발견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상 텍스트에 적용하여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패러다임으로 유형화 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를 패러프레이즈 하여 요약한 뒤,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이루는 자질적 요소들을 추출하는 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리와 방법』(미발표 원고) 방법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1. 『나목』

이 텍스트는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7개의 사건과 행위를 중심으로 분절한 뒤 요약된다. 이 때 요약은 패러프레이즈의 기법을 쓰며, 요약문 뒤에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함유한 형용사나 고유명사의 형태로 다시 그 인물의 자질들이 압축 제시된다.

1) 의미망 요약

① 주인공 이경은 한국전쟁 중 남자가 부재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서울 명동의 미 8군 PX 한국인 위탁 경영자 최만길 사장이 운영하는 초상화부에 근무한다.(책임의식이 강한)

② 이경은 자기로 인해 두 오빠가 죽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어머니와 대립하면서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반항의, 측은한, 참담한)

③ 어느 날, 최 사장이 중년의 환쟁이 옥희도를 데려오지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으나 식구가 불었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이경을 활기차게 만든다.(새로운, 활기찬)

④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도에게 마음이 끌리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존경의, 열망의, 능동적인)

⑤ 이경은 옥희도의 제의로 저녁 식사를 하고 명동 거리와 장난감 칠판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구점 사이를 거닐며 고독을 느낀다.(고독한, 부유하는)

⑥ 이튿날, 이경은 PX 전공(電工)인 태수와 감기 몸살로 걸근한 옥희도를 찾아갔다가, 그의 부인을 보고 호감을 갖는 자기에게 화가 나 곧 돌아온다.(초라한,

자신에게 화가 나는)

⑦ 21세가 되던 새해 첫날, 이경은 태수의 일방적인 약속 장소에 2시간 늦게 나갔음에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나, 그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는 도중 태수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베풀고 싶어 한다.(연민의)

⑧ 새해 들어 옥희도는 가끔 기침을 했으나 문병 갔을 때보다 호전되어 다른 환쟁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이경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기쁨의)

⑨ 이경은 우연히 예전의 장난감 가게에서 옥희도를 만나 신선한 데이트를 한 뒤, 그 후 아무런 약속도 안 했으면서 매일 밤 어김없이 침팬지 앞에서 만난다.(우연의, 갈망하는)

⑩ 어느 날 대화 중에 태수의 형님이 옥희도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나오며 태수와 팔짱을 껴으나, 서로의 마음이 끌리지 않음을 느낀다.(냉정한, 불편한)

⑪ 이경은 옥희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는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며,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는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함을 이경에게 말한다.(실망하는, 도덕심의)

⑫ 이경은 PX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가, 캔버스 속에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화면에 꽃도 열매도 잎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하늘도 땅도 없는 뿌연 혼돈 속에서 괴물처럼 부유함을 느낀다.(절망의, 무채색의, 뿌연, 참담한)

⑬ 이경은 옥희도의 부인에게 생활고를 들고는 화가 나 뛰어나오며, 그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모든 것에 심한 기갈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도울 수 없음을 서글프게 생각한다.(서글픈, 부족한, 안타까운)

⑭ 이경은 GI와 약속한 호텔에 들어가지만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시트를 보고, 혀과 옥이 오빠처럼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이 날 것 같아 도망쳐 나오다가, 옥희도의 부인에게 폭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한다.(욕망의, 비참한, 불경의, 깨끗한)

⑮ 집으로 돌아온 이경은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를 데려오지만, 그

녀의 어머니는 곧 죽게 된다.(참담한, 외로운)

⑩ 이경은 태수와의 결혼 제의를 거절하다가, 연정을 품고 있던 옥희도가 아버지와 오빠의 환상으로부터 탈출을 권하며 떠나버리자, 얼마 후 태수와 결혼한다.(이별의, 현실안주의)

⑪ 이경은 어느 날 신문에서 고(故) 옥희도 유작전 기사를 읽고 태수와 함께 갔다가, 지난날 옥희도의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이 나목(裸木)이었음을 깨닫는다.(자립의, 회상하는, 희망찬)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통해 압축 요약한 여주인공의 행동 특성을 분석 자료로 모아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종합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격 패러다임을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의 성격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2) 여주인공의 행동 특성



앞에서 의미망의 요약을 통해 드러난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질들을 암시하는 지표들을 형용사나 명사(형)의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6개의 술어가 만들어 내는 특질들의 집합을 만날 수 있다.

책임의식이 강한, 반항의, 측은한, 참담한, 새로운, 활기찬, 존경의, 열망의, 능동적 접근의, 고독한, 부유하는, 자신에게 화가 난, 초라한, 연민의, 기쁨의, 우연의, 갈망하는, 냉정한, 실망하는, 도덕심의, 참담한, 절망의, 무채색의, 뿌연, 서글픈, 부족한, 욕망의, 비참한, 불경의, 깨끗한, 외로운, 이별의, 현실안주의, 자립의, 회상하는, 희망찬

이렇게 추출된 이경의 성격적 특질들을 계열별로 모아보면 크게 세 계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강한, 내강(內剛)적 특성계열(T1)과 외유(外柔)적인 특

성계열(T2), 그리고 도덕심이 강한 특성계열(T3)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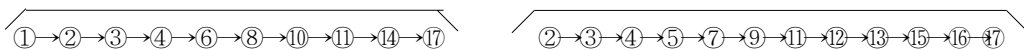
그러나 T1 특성 계열과 T3 특성 계열의 요소 중 ‘자기 자신에게 강한’ 특성은 ‘도덕심이 강한’ 것과 같은 특성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계열로 통합할 수 있다.

이경의 성격지표 중 내강의 특성 계열은 작중에서 특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어머니, 옥희도, 죠오, 황태수 등과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반항의, 책임감이 강한, 측은한>의 지표가, 옥희도와의 관계에서는 <고독의, 활기찬, 능동적인, 열망하는, 도덕심의, 자신에게 화가 난>이, 죠오와의 관계에서는 <육체적 욕망의, 도덕심의>가, 황태수와의 관계에서는 <도덕심의, 자립의, 희망찬> 등이 해당되며 이 T1과 T3의 특성계열은 여주인공 이경이 주체가 되는 행동과 사건의 도처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외유적인 특성계열(T2) 역시, 어머니, 옥희도, 죠오, 황태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되는 특성들의 집합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측은한, 참담한>이, 옥희도와의 관계에서는 <연민, 부유하는, 서글픈, 무채색, 뿌연>이, 죠오와의 관계에서는 <비참한, 불경한>이, 황태수와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결혼하는, 현실안주> 등이 발견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체트먼의 도식에 따라 표상하면 아래와 같다.

<p>C(이경) = T1(자신에게 강한 특성) T3(도덕심이 강한 특성) 반항의, 책임감이 강한 능동적인, 열망하는 희망찬 등등.</p>	<p>C(이경) = T2(외유적인 특성) 측은한, 참담한 부유하는, 연민의 결혼의 현실안주 등등.</p>
-----------------------------------------------------------------------------------------------------------------------------------------------------	------------------------------------------------------------------------------------------------------------------------------------



<그림2> 『그 남자네 집』의 인물 성격 특성 계열 분류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자기 자신에게 강한 내강의 성격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한 도덕심을 보이는 외유적인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T1과 T2, T3가 모두 ‘고독한, 측은한, 연민의, 도덕심의, 책임감이 강한’ 등의 특질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패러다임들이 여주인공 이경으로 하여금, 도덕을 지키면서 자신에게는 강하면서도 주변 인물들에게는 측은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외유내강의 인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외유내강 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제,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여주인공의 외유내강적 행동 특성을 본문의 예문을 통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외유내강적 인간형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유교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무의식적으로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사회에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식과 아내가 있는 화가인 옥희도를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런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경은 압박감을 느낄수록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T1형의 성격적 특질을 보여준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시시 돌아눕더니 후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 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⁴⁶⁾

한편, 어머니는 남자만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대표적 표상(表象)이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딸이 살아남고 아들

46) 박완서(1990), 『나목』, 작가정신, p.230.

들이 죽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하는 말을 직접 쏟아놓으며 생명의 경중(輕重)까지 매겨버린다.

“안방에 앉았으려니까 글썽 건넌방에서 기타 소리가 나지 않겠니? 꼭 육이가 치는 것 같더라.”

“그건 회오리바람 소리였단 말이에요. 난 그 눈보라 속을 얼어 죽을 뻔해가며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 기타 소리가 아니었던 말이에요”(중략)

“안된다. 안돼!”

별안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십년은 젊어진 듯 쇠되게 울리더니 기타를 빼앗으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중략)

우리 모녀는 기타를 사이에 놓고 미친 듯이 방바닥을 뒹굴고 짐승처럼 씨근대며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고 처절한 싸움을 했다.

한참 만에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긴 쪽은 어머니였다. 모처럼 시도해본 과거와의 단절은 이렇게 해서 수포로 돌아갔다. 47)

아들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다. 아들을 죽인 바깥세상은 어머니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들을 삼킨 세상을 다시 삼킴으로써 세상을 없애버린다. 여주인공 이경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 갈등하고 반항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점에서 T2적 성향을 보인다.

눈귀의 눈물을 닦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새 사람이 오고하는데 나는 그저 망연히 서 있었다. 머리가 텅 빈 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문득 내가 쓰러지지도, 땅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서 있을 수 있음은 누군가의 부축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부축은 능숙하고 편안했다. 찬란한 빛처럼 어떤 예감이 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오래도록 그 예감만을 즐겼다.(중략)

“우리는 우리들의 해후를 예감했나 봐요.”

47) 박완서(1990), 전계서, p91.

“해후라니? 우리는 요새 늘 같이 있었는데.....”

그는 같이 있었다는 걸 다짐하듯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두둑하고 따뜻한 손 속에서 내 작은 손이 녹아 오고 그의 체온, 입김, 시선, 그런 것이 거의 범열과도 같은 황홀한 기쁨을 나에게 주었다.⁴⁸⁾

위의 예문은 옥희도에게서 자신과 같은 고독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끌리게 되는 장면이므로 T2적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쟁이 가져온 물질적 궁핍 속에서 생계의 수단으로 미군 애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옥희도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 낸 황량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두 사람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만남을 계속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은 여주인공 이경이 당대의 우리나라가 처한 전(戰) 후 상황이나 도덕적 관념, 어려운 현실 여건 등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경은 그 옛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선택한 남편에게서 오랜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낯설음을 느낀다. 이렇게 그녀가 그러한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의 여성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는 장면이므로 T1의 성격계열로 설명할 수 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 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를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중략)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⁴⁹⁾

48) 박완서(1990), 전계서, p126, p127.

49) 박완서(1990), 상계서, p,282, p287.

다음의 예문은 여주인공이 미국인 일등병의 구애에 호응하여 경서 호텔로 찾아갔다가 정사 직전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다. 이경이 순순히 경서 호텔로 찾아가 미군의 애무에 몸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자기 파멸적인 자포자기적 충동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녀는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1과 T3의 두 계열로 분류된다.

“까야악”

나는 다시 이 건물 구석구석까지 흔들릴 만큼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다시 방금 내가 느끼고 있는 위기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조오’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다. 혁이 오빠와 육이 오빠의 육신처럼 시트를 붉게 물들이며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았다.

도망쳐야지, 도망쳐야지.

“왓쓰 매리?”

그가 다시 나에게 접근해 왔다.

“오 노오, 프리이스 프리이스 돈 브레이크 피.”

나는 나를 제발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을 하며 손을 모아 짹짹 빌었다⁵⁰⁾.

이처럼 여주인공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격을 보여준다. 위 인용문처럼, 미국인 일등병 조오의 구애에 호응하여 경서 호텔로 찾아갔다가, 정사 직전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오는 장면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약한 듯하면서도 강한 성격 유형을 보여주는 T2계열의 특질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유교적 풍토 하에서 남아선호 사상을 강조하는 어머니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옥희도와의 정신적 사

50) 박완서(1990), 전계서, p.212.

량으로 내면적인 갈등을 느끼면서도 조오 등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을 잃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유내강적 성격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텍스트의 분석에 들어갈 차례이다. 앞에서 제시한 채트먼의 성격분류 패러다임의 분석방식을 따르기 위해 우선, 텍스트의 패러프레이즈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2.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이 작품은 의미망은 모두 14개항의 의미단락으로 분절되어 요약된다. 요약 시에는 텍스트의 의미작용을 가능한 한 총체적으로 수렴시켜 정리하기 위해 분절된 단락의 수직적 의미작용과 수평적 의미작용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1) 의미망 요약

① 차문경은 남편을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오다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낸 온 서류 한 장으로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살아가는 35세의 중학교 가정교사이다.(희생적인, 타협하는)

② 그녀의 남편은 피임으로 임신하지 않은 것을 이혼 사유로 억지를 부림으로써 억울함을 느낀다. (억울한)

③ 주인공은 힘들었지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사라는 신분이어서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간다.(자긍심의, 당당한)

④ 그녀는 대학 서클의 동창회에서 우연히 결혼 15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홀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셀러리맨 김혁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외로운, 의지하는)

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 주는 혁주에게 순종적이며 행복감을 느껴 결혼까지 약속한다.(행복한, 순종하는)

⑥ 혁주 어머니의 반대로 주인공의 결혼계획은 위기를 만나고, 혁주 앞에 정애숙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난다.(어려운)

⑦ 주인공은 혁주가 어머니의 뜻대로, 미모와 순종적인 애숙에게 처녀장가를 들자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다. (버림받는)

⑧ 주인공은 임신 사실을 혁주에게 알렸으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것을 결심한다.(비참한 억울한, 강한, 도전적인)

⑨ 주인공은 ‘미혼모’라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을 남기게 되어, 교사직을 그만 두고 아들 문혁을 낳아 키운다.(포기하는, 현실 인정하는)

⑩ 주인공은 교사를 그만 두고 놀이방을 운영하다가 과거를 문제 삼는 이웃 동종업자의 방해로 그만 두게 된다.(어려운)

⑪ 그 후, ‘체면이나 교양과 도덕을 중시하는 직업’ 대신 반찬가게를 하며 힘들게 살아간다.(뜻뜻한, 노력하는)

⑫ 정애숙이 자궁수술로 여자아이를 낳고는 불임이 되자, 황여사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요구하지만, 주인공은 이에 강경하게 대항한다. (대항하는)

⑬ 결국 아이 문제로 법정싸움까지 하게 되지만, 고 사회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 문경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외로운, 당당한, 힘든)

⑭ 그러나 임신 당시에 김혁주가 문경에게 보낸 친자부정의 내용이 담긴 편지가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그는 고소를 취하한다.(쟁취하는)

이제, 14개의 의미단락으로 요약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텍스트 속에서 기능하는 주인공 차문경의 행동특성을 성격 특성 집합으로 수렴한 뒤, 계열별 패러다임으로 명명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분류와 명명작업은 기존의 추상적인 성격 분석 방식의 과학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2) 여주인공의 행동특성

앞장의 패러프레이즈 결과로 추출된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과 기질을 암시하는 지표들을 형용사나 명사(형)의 형태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배열한 23개의 형용사는 작중인물의 성격적 자질을 함유한 술어들로서 인물이 참여하는 행동과 사건들 속에 보편적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희생적인, 타협하는, 억울한, 자긍심의, 당당한, 외로운, 의지하는, 사랑하는, 순종하는, 어려운, 버림받는, 비참, 강한, 도전적인, 포기하는, 현실 인정, 깨끗한, 노력하는, 대항하는, 외로운, 당당한, 힘든, 쟁취하는

이것을 성격 특성-계열로 모아보면 크게 두 계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모순에 대항하는 도전적인 특성 계열(T1)과 내향적인 성격 특성 계열(T2)이 그것이다.

첫째, 모순에 대항하는 도전적인 특성 계열은 직업, 김혁주, 소송, 문혁 등과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깨끗한, 성차별에 대항하는>이, 김혁주와의 관계에서는 <강한, 도전하는>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모순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쟁취하는>이, 아들 문혁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제도에 대항하는, 남자의 권리 강조하는> 등이 해당된다.

둘째, 내향적인 특성 계열 또한 직업, 김혁주, 소송, 문혁과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여주인공 차문경이 가진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자긍심의, 당당한, 애착심을 갖는, 깨끗한, 성차별에 대한 비참함>이, 김혁주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운, 행복한, 순종하는, 의지하는, 사랑하는>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립의, 외로운 투쟁의>이, 아들 문혁과의 관계에서는 <혼자서 양육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모순에 대항하는 도전적인 특성 계열과 내향적인 특성 계열이 여주인공 차문경과 관련된 사건에서 골고루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깨끗한, 성차별에 대항하는, 자긍심의, 당당한>

한, 애착심을 갖는, 깨끗한, 성차별에 대한 비참함>이, 김혁주와의 관계에서는 <강한, 도전하는, 외로운, 행복한, 순종하는, 의지하는, 사랑하는>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모순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쟁취하는>이, 아들 문혁과의 관계에서는 <엄마 성 따르는, 남자의 권리 강조하는>이, 직업과의 관계에서 <자긍심의, 당당함, 애착심을 갖는, 깨끗한, 성차별에 대한 비참함>이, 김혁주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운, 행복한, 순종하는, 의지하는, 사랑하는, 억울한>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립의, 외로운 투쟁의, 자립의, 외로운 투쟁의>이, 아들 문혁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제도에 대항하는, 남자의 권리 강조하는, 혼자서 양육하는> 등이 관련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채트먼의 도식에 따라 정리하여 표상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은 도전적인 특성과 내향적인 특성을 조화롭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적 속성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T1과 T2는 모두 ‘깨끗한, 당당한, 자립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등의 기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주인공 차문경이 모순된 사회제도에 대항하면서, 혼자서 힘으로 권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도전적인 성격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서들이다.

따라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인 차문경의 성격은 도전·쟁취 형으로 명명된다.

이제, 여주인공인 차문경의 도전·쟁취적인 성격 유형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차례이다.

3) 도전과 쟁취의 인간형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여주인공인 차문경은 35세의 독신녀이다.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살면서, 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일하는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는 주인공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지향적인 행동력을 지닌 강한 에고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그녀가 가부장제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행동으로 투쟁하는 모습도 이런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혁주가 침대 걸을 떠나 창가에 놓인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담뱃갑을 꺼냈다.

“아니 혁주씨. 담배 끊었다더니?”

“지금 처음 피는 거야, 오죽 답답해서 그러겠어,”

“지금 처음 피는 사람이 담뱃갑을 넣고 다녀요?” “따지지 마, 여자가 좀 대강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참아내기 위해, 대강 넘어가기 위해.⁵¹⁾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주인공 문경이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장면에서, 혁주가 핀잔을 주자 금세 자기 조절력을 앞세워 순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T2계열의 내향적인 기질이 다소 감지된다.

그 여자를 결정적으로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인간적인 모욕보다는 직업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직업은 여지껏 그 여자의 떳떳한

51) 박완서(1989), 전계서, p.27.

자립을 보장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의 근거가 돼 주었다. 그건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 주고를 떠난 그 여자 스스로의 가치관의 문제였다. 알아주기는커녕 인심이나 세태가 날로 교사직을 얹잡고 능멸하는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홀로 긍지를 지키기란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그거야말로 자기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⁵²⁾

차문경은 직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교사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여성은 그 직업이 모욕당할 때 가장 분노하게 된다. 주인공이 혁주에게 매 맞는 일이나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일에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장면에서는 T1계열의 특성이 감지된다.

“충격이 심한 것 같은데 나 역시 쇼크예요. 사표 내는 시기를 너무 미룬다 싶긴 했어도 차 선생이 자발적으로 사표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몰랐거든요.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의 도덕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녜요.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말예요. 차 선생이 그런 사람인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내 선에서 쉬쉬 따무리를 짓는 건데.....”

“죄송합니다. 진작 의논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의논은 무슨 놈의 의논, 나 그 따위 저속한 의논 받는 사람 아녜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교장실을 물러났다.⁵³⁾

직업에 대하여 강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교육관과는 무관하게 교육자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래도 자기 댁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싫지 않았고, 정직한 교육자가 되고자 몰래 주는 돈 봉투를 마다하여 학부 모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깨끗한 교직자가 되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나 잘 못된 사회 인식과 힘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도 안한 여자 선생이 임신을 했다.’는 꼬리표와 함께 교직을 떠나게 된다.

여기서 차문경의 혼외 임신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도덕적 질서와 교장의 사직

52) 박완서(1989), 전계서, p.45.

53) 박완서(1989), 상계서, p.81.

종용 등은 여성의 혼외 임신을 허용하지 않는 이 사회의 도덕적 관습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법률과 같은 공식적 부문과 문화 가치관과 같은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여자가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운명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의 <자(子)인도 청구권 소송>제도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부여해 온 차별적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 차문경은 혼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도덕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대항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싸워 나간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 제도와 대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T1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내 호적에다 나 혼자 낳은 아이로 입적시킬 거야. 물론 내 성을 따르게 할 테고요 새 세상에 엄마 성을 따른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반드시 명문화된 법조문에 의해서만은 아니잖아. 관습에 의해서지. 이 아이도 언제 어디서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불이익이나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야.”

“나는 우리 아기를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강하게 늠름하게 키울 테니 두고 봐.” 54)

위의 예문에서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고 자기 성을 따르게 하겠다는 대화에서는 사회의 모순된 제도에 맞서 싸우려는 여주인공의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10월초 차문경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비로소 자신이 김혁주가 제기한 자(子)인도 청구권 소송의 피신청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이라니, 그 여자에겐 피고나 다름없는 어감으로 들려서 우선 가슴이 떨렸다.55) (중략)

54) 박완서(1989), 전계서, p.89.

55) 박완서(1989), 상계서, p.152.

그러면서도 그 여자의 의식에 집요하게 달라붙어 그때나 이때나 한결같이 유효한 상식이 있었으니 그건 민법 중에서도 가족생활관계를 규정지은 소위 가족법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었다.⁵⁶⁾

위의 두 예문에서 여주인공은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말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인공이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소 T2적 성향이 감지된다.

또한 여주인공은 결사적으로 지켜낸 아들을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중 남자’로 키우고 싶어 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 당당하고 도전하는 T1계열의 성격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여자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아기 이름을 문혁이라고 지었다. 순우리말 이름도 몇 개 생각해 놓은 게 있고 또 뜻과 음이 좋은 한자이름도 사진을 보며 맞춰 놓은 게 있었지만 혁주와 문경이 두 사람의 이름자 중에서 한 자씩 떼어다 아들의 이름을 만들기로 했다. 아마 임신생한테 그런 뜻을 의논했다라면 담박 치사하다느니 집요하다느니 하는 평을 들을 게 뻔했다. 그러나 문경이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아이의 출생의 진실을 남겨놓고 싶었다. 가끔 그 탐스럽고 잘생긴 아기 아버지가 혁주라는 생각을 하면 쓰악해진 적도 있었지만 사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뜯어고치거나 없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거짓말쟁이가 못 되었다. ⁵⁷⁾

위의 예문 역시, 여주인공 차문경이 성차별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아들 문혁이의 이름을 자신의 성을 따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혼자 키우는 등, 사회제도에 도전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T1계열로 볼 수 있다.

실상 지금 그 여자는 결과에 대해선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단다. 시방 그 여자는 겁이 나서 간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지만 그가 부정하면 자신에게 불리해질까봐 그렇게 겁

56) 박완서(1989), 전계서, p.154.

57) 박완서(1989), 상계서, p.91.

이 나는 게 아니었다. 만일 그가 그 사실을 부정하면 그런 남자와 한때 살을 섞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치욕스러울 것 같았다. 또한 아무리 소중한 아들이라지만 그 생명의 비릇됨에 있어서 반의 책임은 그런 남자에게 있다는 걸로 아들까지 뜨악해질 것 같았다. 그 여자는 그게 싫고 두려웠던 것이다. 강렬하던 시선이 슬프고 따뜻하게 풀렸다. 혁주가 내려 가고 있던 눈을 잠깐 치떴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 여자는 두 가단의 한 없이 가냘프고 초라한 떨림이 문득 서로 스친 것처럼 느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몇 마디 더 붙고 대답했지만 그 여자는 건성으로 들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 보름 후 언도 공판이 있기 전에 그 여자는 혁주가 고소를 취하 했다는 걸 알았다.⁵⁸⁾

이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차문경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 문혁을 낳아 잘 키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친자 소송 재판과정에서도 일관된 행동으로 자기주장을 펼쳐나감으로써 사회의 모순된 제도에 대한 도전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와 같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의 성격은 사회의 모순된 제도와 관습 등에 대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도전, 쟁취적 성격으로 정리된다.

뿐만 아니라, 차문경은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개성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동시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정관념과 싸우면서 강한 실천력을 보이는 발전적 인물로도 평가할 수 있다.

3. 「너무도 쓸쓸한 당신」

이 소설은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박완서가 추구하는 인물의 성격과 전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로 선정되었다. 앞의 텍스트들처럼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을 패러다임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의미망을 해체시킨 뒤 패러프레이

58) 박완서(1989), 전계서, p.165~166.

즈 식 요약과정을 거치기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성격지표를 찾아내기 위해서 행동과 기질을 형용사의 술어로 압축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1) 의미망 요약

① 그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다가 명예 퇴직한 남편을 못마땅해 하며, 큰 딸 채정이가 약속해 놓은 커피숍으로 간다.(못마땅해 하는, 빈정거리는)

② 그녀는 결혼한 아들 채훈의 졸업식장에서 보여준 촌스러운 남편의 행동과 옷차림에 못마땅해 한다.(못마땅해 하는, 혐오하는)

③ 그녀는 대학에 합격한 딸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와 별거를 하면서 필요시에만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을 한다.(무관심한, 자기중심적인)

④ 그녀의 남편은 고지식하면서도 가부장적 책무를 천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서, 은퇴한 후에도 연금을 꼬박꼬박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초라한, 권리 주장하는)

⑤ 그녀는 예단으로 받은 양복을 입고 온 남편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졸업식장에 참석하지만 내내 못마땅해 한다.(불만스런)

⑥ 그녀는 졸업식장에서 안사돈이 채훈이를 “자기집 새사람”이라고 부르자 화가 나기 시작한다. (화난, 초라한)

⑦ 그녀는 몇 해 전 딸 채정이의 졸업식장에서 사돈댁으로부터 설움을 받으며, 언젠가 아들 가진 세도를 부리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리며 상실감을 느낀다.(상실감의, 배신감을 느끼는)

⑧ 그녀는 옛날 딸의 졸업식 때 가졌던 씩씩함을 다시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느낀다.(씩씩한, 스산한)

⑨ 그녀는 잊은 척 아이들에게 여행권도 주지 않고 남편과 함께 졸업식장을 빠져나오며 은근히 쾌감을 느낀다.(배신감을 느끼는, 자존심이 강한)

⑩ 그녀는 안사돈으로부터 예정대로 여행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고, 울고 싶을

정도의 감정과 허탈감을 느낀다.(허탈한)

⑪ 그녀는 별거를 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몸의 만남을 후회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음을 깨닫는다.(성이 단절된, 고단한, 후회하는)

⑫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기에 물린 그 혐오스럽던 정강이를 보며 쓸쓸함과 측은함을 느낀다..(쓸쓸한, 측은한)

⑬ 그녀는 갑자기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솟아올라 모기물린 자국을 가만 가만 어루만지며, 가부장적 책임을 다 하느라 초췌해진 남편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연민의)

이제, 13개의 의미단락으로 요약된 텍스트로부터 뽑아낸 성격 특성의 자질들의 집합으로부터 채트면식의 성격 특성 계열의 패러다임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2) 여주인공의 행동특성



이 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적 기질을 보여주는 형용사는 모두 21개이다. 이러한 형용사들이 의미하는 기질들이 교집합을 이루면서 작중인물의 유사한 특성 계열들로 패러다임으로 묶이고 분류된다.

빈정거리는, 못마땅해 하는, 혐오하는, 무관심한, 자기중심적인, 초라한, 권리를 주장하는, 불만스런, 화난, 초라한, 상실감을 가진, 배신감을 느끼는, 쓸쓸한, 스산한, 자존심이 강한, 허탈한, 고단한, 후회하는, 측은한, 연민의

이들을 계열별로 모아보면 크게 두 계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특성계열(T1)과 연민을 느끼는 특성계열(T2)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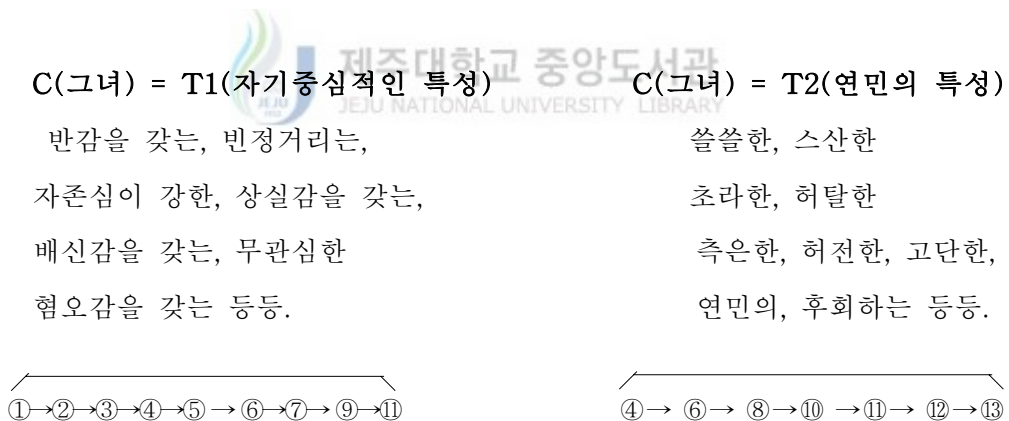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특성 계열은 졸업식장, 결혼식장, 호텔 등에서의 행동 특성과 관련된다. 졸업식장에서는 <반감을 갖는, 빈정거리는, 못마땅해 하는>이, 결

혼식장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허탈한, 상실감을 갖는, 배신감을 갖는, 무관심한>이, 호텔에서는 <협오감을 갖는> 등이 관련어로 분류된다.

연민을 느끼는 성격의 특성 계열은 졸업식장, 결혼식장, 호텔 등에서의 행동 특성을 통해서 파악된다. 졸업식장에서는 <초라한, 쓸쓸한, 스산한>이, 결혼식장에서는 <초라한, 허탈한>이, 호텔에서는 <측은한, 허전한, 고단한, 연민의, 후회하는> 등이 특성지표로 발견된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특성 계열과 연민을 느끼는 특성 계열은 여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에 골고루 퍼져 함유되어 있다. 졸업식장에서는 <반감을 갖는, 빈정거리는, 못마땅해 하는, 초라한, 쓸쓸한, 스산한>이, 결혼식장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상실감을 갖는, 배신감을 갖는, 무관심한, 초라한, 허탈한>이, 호텔에서는 <협오감을 갖는, 측은한, 허전한, 고단한, 연민의, 후회하는> 등이 성격 특성 지표로 발견된다.

이제, 이것을 체트먼의 도식에 따라 표상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4>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은 자기중심적인 특성과 연민의 특성을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T1과 T2는 모두 ‘쓸쓸한, 초라한, 연민의’ 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주인공 ‘그녀’는 허름

한 옷차림을 한 남편을 보면서 반감을 갖고 빈정거리다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 남편의 야윈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허전함을 느낀다.

따라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그녀’의 성격은 연민 형으로 명명된다. 이제, 여주인공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연민의 인간형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서울에서 학교를 합격한 자식을 위해 남편은 시골에 둔 채로 몇 년을 떨어져 지낸다. 이 점에서 그녀의 성격은 다소 진보적이며 개성적인 점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결혼이란 하나의 ‘선택’을 통해 취득한 가족 관계 중 자식 장래를 위해 아예 다른 길의 선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모형을 따르는 전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돌아보다가 그녀는 예구머니. 소리를 지를 뻔하게 놀라면서 얼굴을 돌렸다. 팬티만 입은 남편의 하체가 보기 좋았다. 넓적다리에 약간 남은 살은 물주머니 처럼 축 처져있고, 툭 불거진 무릎 아래 털이 듬성듬성한 정강이는 몸동이 처럼 깡말라 보였다.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을 것처럼 혐오스러웠다. 징그러운 것하고도 달랐다. 징그럽다는 느낌에는 그래도 약간의 윤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건 굳더더기 없는 혐오 그 자체였다.⁵⁹⁾

(중략)

때가 긴 손톱과 함께 그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섰다. 그렇게 까지 안 살아도 될 만한 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가부장의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어 있으려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목구멍으로 뜨겁게 치받쳤다. 그녀는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의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을 가만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⁶⁰⁾

59) 박완서외(1998), ‘너무도 쓸쓸한 당신’, 『‘98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p.87.

60) 박완서외(1998),상계서, p.91~92.

위의 예문에서 여주인공은 남편을 혐오스러워 하다가, 곧 늙어버린 남편에게서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늙은 몸을 어루만져 줄 마음이 생기게 된다. 손톱 밑에 때가 낀 투박한 손을 가진 남편과 함께 그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일기 시작한다.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을 어루만지는 행동에서 여주인공의 마음은 분명 T2계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 특성 계열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러브호텔에 들어가 서로 단절된 몸을 후회하는 장면을 속에서도 발견된다. 성의 분업에 순치되어 살다가 마주쳐 늙은 몸으로 다시 만난 부부. 여성 화자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의 몸을 어루만지는 행동 또한 T2계열로 설명할 수 있다.

주인공은 사돈댁에 아들을 빼앗겨버린 상실감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남편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에 눈을 돌린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허물어진 남편의 몸을 쓰다듬는 아내의 손놀림과 함께 ‘늙음’에 대한 수궁과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촌스러운 남편이 밍지만 어쩔 수 없이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은 여주인공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여리고 정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노년의 삶을 긍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입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여주인공은 졸업식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편을 보면서 반감을 갖고 빈정거리는 자세를 보인다. 또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는 잘사는 사돈과 비교하면서 초라함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사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갖는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 남편의 야윈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허전함을 동시에 느낀다. 따라서 이 또한 T2계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 직장과 겨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데 절망적인 염증을 느꼈다.⁶¹⁾

61) 박완서외(1998), 전계서, p.64.

그의 체제순응은 강요된 것도 의도된 것도 아닌 체질적인 거였다. 그의 매력 없음의 본질 같은 거였다. 그와 다시 합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중략)

아이들 뒷바라지는 핑계일 뿐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것은 교장 사모님 노릇을 안 하는 거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별거에 들어 간 후에도 남편의 봉급은 다달이 거의 다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됐다.⁶²⁾

어쩌자고 이 남자는 이렇게 정직한 걸까. 그녀는 남편의 존스러움, 초라함, 변변치 못함이 다 곁에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혼자서 밥 해먹은 티만 같이 여겨져 바로 보기가 싫었다. ⁶³⁾

주인공은 이렇게 남편과 살기를 꺼려하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다. 여주인공의 이러한 남편에 대한 혐오는 결국, 남편을 생각하는 연민으로 바뀌게 된다.

보기 싫은 것은 둘째 치고 감기가 들 것 같아 덮어주려고 꽃무늬 덮개 자락을 들추다 말고 어쩔 수 없이 벗은 하체를 가까이 보게 되었다. 모기 물린 자국이 시뻘겋게 한창 약이 오른 것도 있고, 무르스름 가라앉은 것도 있고, 무수했다. 이 말라빠진 정강이에서 피를 빨다니, 아무리 미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제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중략)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어 있으려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목구멍으로 뜨겁게 치받쳤다. 그녀는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을 가만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⁶⁴⁾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주인공은 남편과 떨어져 살기 위하여 시골 교장 관사를 뒤로 하고 딸의 학교 입학 핑계로 서울에 와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62) 박완서(1998), 전계서, p.69~70.

63) 박완서(1998), 상계서, p.83.

64) 박완서(1998), 상계서, p.91~92.

야위고 고달픈 역정을 발견하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나’의 성격 특성은 연민 형으로 명명하게 된다. 이제, 네 번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남겨 두고 있다. 역시, 의미망의 요약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특성 계열집단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해보겠다.

4. 『그 남자네 집』

이 소설은 18개의 의미단락으로 분절하여 패러프레이즈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격 특성 계열로 모을 수 있는 형용사 술어들을 모아 집합을 이루게 한 뒤, 동일 계열과 유사 계열을 묶어서 인물의 성격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게 된다. 여기서 형용사와 술어의 총합은 곧 성격지표들의 보편소를 찾아내는 행위와 사건에 개입된 작중인물들의 특성 계열이 된다.



1) 의미망 요약

① 나는 50년 전 첫사랑의 남자가 살았던 기와집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감천변을 찾아갔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회상하는, 반가운)

② 50년 전, 어머니의 외가 쪽 친척인 그 남자네가 내가 사는 동네의 기와집으로 이사를 오고, 우연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게 된다.(기대하는)

③ 고교 시절 이성 교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남자와 마주치면 얼른 눈길을 피하면서도 하루 종일 기분 좋아했다.(설레는, 모른 척하는)

④ 나는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겨울날 퇴근길 전차 안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비참한, 사랑하게 되는)

⑤ 나는 전쟁의 부상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그만 둔 현보에게서 쓸쓸함이 늘

묻어나 보인다고 생각한다.(연민의)

⑥ 나는 6·25전쟁 후 서울대를 중퇴하고 미군부대에 나가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며 어머니와 생활을 한다.(부양의 책임감을 느끼는)

⑦ 그 남자는 정지용과 한하운의 시를 유창하게 외우며, 유머가 있는 축구선수였으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쓸쓸함이 묻어났다.(낭만적인, 쓸쓸한)

⑧ 그와 나의 사랑은 피난 갔던 사람들이 속속 서울로 돌아오면서 초점을 잃는다.(떨어지는)

⑨ 어머니는 전쟁 중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한 것이 동네 반장의 고발 때문으로 생각하고, 그 동네를 떠나 하숙을 치면서 내가 미군 부대에 다니는 것을 그 만두게 만들었다.(원망스런)

⑩ 그 남자네도 역시 전쟁 통에 가세가 기울어 명륜동으로 이사를 가고, 나는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 미군 부대 군속으로 있던 전민호라는 은행원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다.(안정을 찾는, 현실을 수용하는)

⑪ 나는 그 남자에게 청첩장을 내밀며, 그 남자의 어깨가 요동치는 것을 보며 당황한다.(미안한, 마음이 아픈)

⑫ 나는 결혼 이후, 서글서글한 은행원 남편과 억척같은 생활력을 가진 시어머니 사이에서 예전의 그 남자를 떠올린다.(결혼한, 이질감을 느끼는, 회상하는)

⑬ 나는 결혼 후, 기대와는 달리 남편이 내주는 월급으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간다.(실망한, 평범한)

⑭ 나는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 야구장에도 가고 다음 동대문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다.(재회의, 낭만적인)

⑮ 나는 그 남자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지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는다.(이별하는)

⑯ 나는 그 남자가 뇌수술을 받고 실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실망하는)

⑰ 나는 그 남자가 퇴원하기 전 병실로 찾아갔으나, 문병 온 여자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충격으로 입덧을 하지 않게 된다.(기대에 어긋난)

⑱ 그 남자의 부음을 들은 지금 나는 옛날 그 남자네와 우리 집이 모두 사방이 비가 새고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억을 회상하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의미망 요약과 성격 특질 지표들을 토대로 하여 여주인공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주인공의 행동특성

18개의 의미단락으로 요약된 이 소설은 다시 23개의 형용사 집합으로 이루어진 작중인물의 성격 특성들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적 자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회상하는, 반가운, 기대하는, 설레는, 비참한, 사랑하게 되는, 연민의, 부양의 책임감을 느끼는, 낭만적인, 떨어지는, 원망스런, 현실을 수용, 미안함, 마음이 아픈, 이질감을 느끼는, 회상하는, 평범한, 재회의, 낭만적인, 이별하는, 실망하는, 기대에 어긋난, 추억을 회상하는

이들을 계열별로 모아보면 크게 두 계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첫째 계열은 낭만적인 성격의 특성계열(T1)과 현실을 수용하는 특성계열(T2)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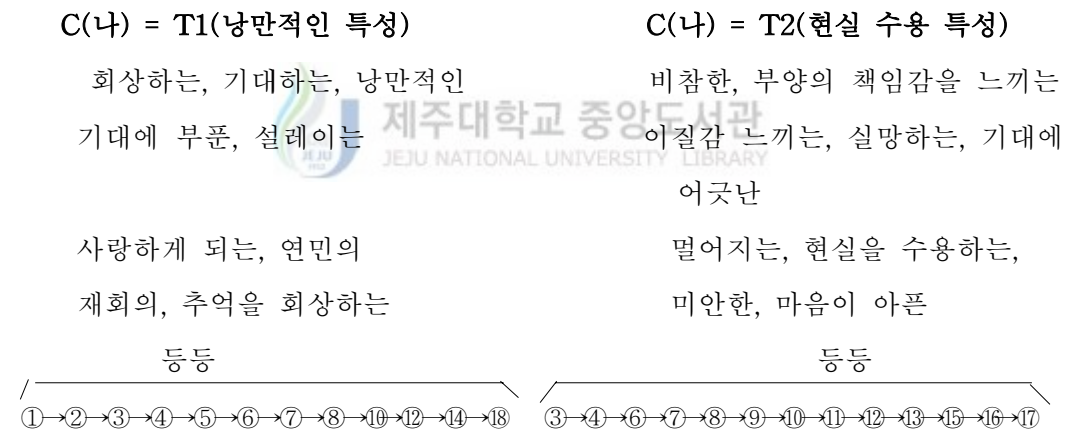
낭만적인 성격 특성 계열은 사회적 상황, 시대생활, 그 남자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 술어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사회적 상황에서는 <회상하는, 기대하는, 낭만적인>이, 시대생활에서는 <기대에 부푼>이,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설레는, 사랑하게 되는, 낭만적인, 연민의, 재회의, 이별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등이 관련된다.

현실을 수용하는 성격 특성 계열 역시, 사회적 상황, 시대생활, 그 남자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 술어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사회적 상황에서는 <비참한, 부양의

책임감을 느끼는>이, 시대생활에서는 <이질감 느끼는, 실망하는, 기대에 어긋난>이,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멀어지는, 현실을 수용하는, 미안한, 마음이 아픈>등이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술어들이다.

그리고 낭만적인 특성 계열과 현실을 수용하는 특성계열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주인공인 ‘나’와 관련된 상황에서 골고루 내재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황에서는 <회상하는, 기대하는, 낭만적인, 비참한, 부양의 책임감>이, 시대생활에서는 <기대에 부푼, 이질감, 실망하는, 기대에 어긋난>이,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설레이는, 사랑하게 되는, 낭만적인, 연민의, 재회의, 이별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멀어지는, 현실을 수용하는, 미안한, 마음이 아픈, 이별하는, 실망하는>등이 두 가지 계열의 성격 특성을 함유한다.

이것을 채트먼의 도식에 따라 표상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 『그 남자네 집』의 인물 성격 특성계열 분류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은 낭만적인 특성과 현실 수용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T1과 T2는 모두 ‘추억을 회상하는, 기대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등을 공유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은 여주인공 ‘나’가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현실 속에서도 입증된다. 또한 은행원인 전민호와의 결혼에 있어서도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차이점 등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낭만을 즐기기도 하나, 뜻하지 않게 그 사랑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그 남자와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되살리게 된다.

따라서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인 ‘나’의 성격은 수용 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제, 여주인공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 유형을 본문의 예문을 통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수용적 인간형

전쟁으로 이념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여주인공은 그 남자와의 첫사랑으로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시를 찾고 음악을 찾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간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주인공 ‘나’는 낭만적인 성격(T1계열)을 보여준다.

그가 멋있어 보일수록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 나는 내 몸에 물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구슬 같다고 했다. 애인한테보다는 막내 여동생한테나 어울릴 찬사였다. 성에 차지 않았지만 나도 곧 그 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구슬 같은 눈동자, 구슬 같은 눈물, 구슬 같은 이슬, 구슬 같은 물결, 어디다 그걸 붙여도 그 말은 빛났다. 그 해 거울은 내 생애의 구슬 같은 거울이었다.⁶⁵⁾

아래 예문에서도 여주인공이 전쟁의 세상에서 그 남자와의 첫사랑을 나누며 시와 음악을 즐긴다. 다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적당히 즐길 줄도 아는 대범하고 낙관적인 성격(T2계열)을 찾아볼 수도 있다.

65) 박완서(2004), 전계서, p37~38.

이 도시 골목골목에 고인 어둠, 포장마차의 연탄가스, 도처에 지천으로 널린 지지궁 상들이 그 갈피에 그렇게 아름다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 남자의 입김만 닿으면 꼭꼭 숨어있던 비밀이 꽃처럼 피어났다. 그 남자하고 함께 다닌 곳 치고 아름답지 않은 데가 있었던가. 만일 시절에 그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되어 되었을까. 청춘이 생략된 인생, 그건 생각만 해도 그 무의미에 진저리가 처졌다.⁶⁶⁾

또 아래 예문에서는 여주인공이 연애보다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의 생계 책임에 더 비중을 두는 인물이다. 멸절한 상이군인이자 백수인 그 남자는 첫사랑으로 존재할 뿐, 남편이 되는 것은 현실 감각이 투철한 은행원 민호라는 인물이다. 결국 여주인공은 첫사랑에게 청첩장을 보여주고 은행원의 부인이 되어 낯선 집안의 새댁으로 살아가게 되는 현실수용적인 T2계열적 특성을 보여준다.

나는 내 식구의 밥줄의 존엄성을 무시할 만큼 연애질에 눈이 멀지 않았다. 그것이 그 남자와 나의 다른 점이었다. 상이군인에게 아직 연금도 없을 때였다. 그의 가장 만만한 돈줄은 늙은 어머니였다.⁶⁷⁾(중략)

나는 제왕처럼 제 입만 아는 남편과 영원토록 아들을 입맛으로 붙들어두려는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에 복잡한 비애를 느꼈다. 나의 비애는 패배감일 수도 있었고, 체념일 수도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길들여놓은 남편의 입맛은 그들 모자의 땃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땃줄을 못 끊은 남편이 경멸스러웠지만 내가 어찌 해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아내이지 산파가 아니지 않는가.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나를 돌아보면서 어찌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⁶⁸⁾

여주인공인 ‘나’ 와 그 남자는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 혼란 속에서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결혼 이후에 나는 서글서글한 은행원 남편과 억척같은 생활력을 가진 시어머니 사이에서 예전의 낭만적인 그 남자를 더욱 떠올리게 된다.

66) 박완서(2004), 전계서, p. 70.

67) 박완서(2004), 상계서, p.39.

68) 박완서(2004), 상계서, p.130.

‘나’는 결혼을 하여 너무나 부족함이 없을 듯 보이는 생활을 한다. 또한 주부 생활에 재미를 붙여 보려는 사이, 시어머니와의 소소한 갈등이 겹쳐지면서 결혼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 즈음에 첫사랑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예전에 그 남자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하자 은행원 민호와 결혼한 것은 여주인공이 현실과 타협하고 순애보적인 사랑보다는 눈앞의 생존을 위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선택한 것으로서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당시의 여성들의 전형적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T2계열) 결국, 『그 남자네 집』은 한국 전쟁 뒤 아낙네들의 모습과 동대문 시장의 풍경, 또 50년대 피폐한 상황을 이겨내고 생계를 유지했던 여성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랑 쪽의 배는 넘게 온 우리 쪽 하객이 기름진 청요리를 미어터지게 먹는 걸 보면서도 별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에겐 기쁨 있게 먹을 수 있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신랑이 부자일 거라는 기대감은 현실로 나타날수록 황홀했다.⁶⁹⁾

위의 예문처럼 여주인공인 ‘나’는 부자일거라는 남편을 갖게 된 기대감에 부풀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당대의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전형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현실 수용적 특성 계열(T2)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행원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그가 부자가 아니라 게 속은 것처럼 분하고 억울했다. (중략)

박수무당은 시어머니를 버선발로 뛰어 나와 맞이했다. 그 호들갑스러운 환대만으로도 시어머니가 그 집의 얼마나 중요한 단골이라는 것 알 수 있었다.(중략)

“넌 일 년에 몇 번만 나 따라다니면 돼. 갈 때마다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라는 거로구나. 나는 내

69) 박완서(2004), 전계서, p.106.

가 시집와서 느낀 어떤 이질감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혐오스러운, 그러나 개선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미리 원천 봉쇄 되어버린 것 같은 시집의 이상한 풍습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⁷⁰⁾

위의 두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공은 결혼을 한 후 남편의 가정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것에 분개하기도 하고, 많은 문화적 차이점으로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시댁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여주인공인 ‘나’는 물건값을 깎을 줄 알게 되고 새로운 단골집을 개발하게 되며, 부잣집 아씨 노릇 대신 짠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악스럽게 흥정도 한다. 그녀는 덤을 달라고 떼를 쓰고, 살 듯 살 듯하다가도 백 원 때문에 안사겠다고 해서 장사꾼으로 하여금 치마꼬리를 붙들게 하는 술수도 부리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의 몸부림을 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옛날의 가슴 설레임의 첫사랑을 잊은 듯 하면서도 옛날을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낭만적이면서도 수피에고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실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은행원인 남편은 부자도 아니었으며 시댁 생활에서의 많은 차이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장면에서는 예고적 성격도 발견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자기 생각대로 개선하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은 현실에 안주하며 주어진 여건에 맞춰 살아가는 보수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의 성격은 일관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현실을 지혜롭게 수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용 형으로 볼 수 있다.

70) 박완서(2004), 전계서, p.125, p.151.

IV. 성격 창조 방식과 특성 비교

1. 성격 창조 방식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며, 그 이야기의 실현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이야기는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시된다.

성격 창조(characterization)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물에 이름이나 별명을 붙이는 일에서부터, 육체적인 외모와 행동, 습관, 말투, 자신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행동이나 사고방식, 과거 생활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간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⁷¹⁾

작가는 창작과정에서 등장인물을 통해 주제의식을 형상화시켜 나가면서 텍스트를 구축한다. 작가가 자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독자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성을 가진 인물로 창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 면은 지금까지 작가가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략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전적으로 창조하는 경우, 둘째는 실재하는 인물에 의하여 다소 힌트를 얻어 창조하는 경우, 셋째는 실재하는 인물에 의존하여 거의 대부분을 창조하는 경우, 넷째는 실재하는 인물에 의하여 전적으로 창조하는 경우이다.⁷²⁾

그런데 실제로 작가는 창작에 있어서 인물을 창조할 때 어느 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네 개의 유형 중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혼합, 절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유형에서 전형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과 개별적인 것에서 상징으로 높여 나가는 길도 인물 창조의 두 가지 방법을 암시해 준다.

71) 권영민(2006),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p.134.

72) 송 면(1985), 「소설미학」, 문학과 지성사, pp.185-186.

E.M. 포스터는 소설의 인물을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s)과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s)로 구분한다. 이들 두 인물은 모두 관심을 객관화 하려고 하는데, 이 때 관심을 객관화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환기된다. 작가는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이건 다른 창작에 있어서의 경험이건 그것을 판단하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밝혀내며 거기에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한 인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만으로 등장인물을 창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물창조에 있어서 작가는 주인공이 아닌 부수적인 인물들은 현실에서 차용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작가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섞어 만든다. 그러나 주인공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차용해오는 것은 기껏 해서 그 용모라든가 그가 겪는 사건의 유인정도이다. 그 정도의 것은 단지 출발점의 구실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은 결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작에 있어서 등장인물은 현실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 만큼 소설속의 주인공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설의 허구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건의 전개가 아니라 인물의 개성이기 때문에, 작가는 창작에 있어서 사건의 전개보다는 인물 창조에 더 역점을 두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소설은 인물의 특이한 개성에 의한 인간·인생·세계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창작에 있어서 인물의 창조와 인물의 전개는 그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궁극적인 인간의 탐구와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에 창조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소설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페인 철학자이자 문학이론가인 오르테가 이 가제트(Ortega y Gasset)는 소설의 재미는 사건의 개연성이나 복잡성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가지는 매력, 그 인물의 가능성, 인물의 체취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대소설에 있어서는 성격창조와 인물묘사, 심리묘사 등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견해이다.⁷³⁾

73) 구인환(1996), 「소설론」, 삼지원, p.252.

따라서 작품의 성공 여부는 성격묘사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문학사에 남아 있는 고전적인 작품들도 모두 인간의 문제를 중시하여 인간성의 탐구에 치중한 결과로서 각기 개성 있는 인물의 창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박완서의 네 편의 텍스트에 나타난 인물 창조 방식에 대하여 언급할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한 송면의 논리에 따르면, 박완서는 작중 인물의 창조 유형을 실재하는 인물에 의하여 다소 힌트를 얻어 창조한 경우와 실재하는 인물을 모델로 하여 거의 대부분을 창조하는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녀의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네 개의 유형 중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혼합, 절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한 이야기와 인물이 자전적 경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산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나의 초기의 작품, 그 중에서도 특히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은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다. 초기작품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의 입을 통해 그런 사정을 슬회하고 있다.⁷⁴⁾



이상은 소설 속의 한 부분이지만 거의 소설적인 허구가 아닌, 나의 한 시절의 진솔한 부분 이기에 그대로 인용했다.⁷⁵⁾

『나목』,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아저씨의 훈장」, 「엄마의 말뚝」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른바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 나는 나의 비통한 가족사를 즐기치게 반복해 왔다⁷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완서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비통한 가족사를 이야기 거리로 삼아 소설로 썼다고 밝히고 있어서 실재 인물에 다소 힌트를 얻기도 하고, 실재 인물을 모델로 하기도 하는 등의 인물을 절충하여 창조해

74) 박완서(1992), 전계서, p.124.

75) 박완서(1992), 상계서, p.128.

76) 박완서(1992), 상계서, p.139.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격 특성 비교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단계로서 앞에서 분석한 박완서의 네 편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순서이다. 작중인물의 성격은 이야기 속에서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동인인 동시에, 그 소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은 소설의 모든 구성요들이 구축하는 유기적 구조 속에서 창조된다. 이 말은 인물의 성격이 어느 한 가지 기법이나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 텍스트를 분석할 때도 소설의 다양한 구조요소를 총체적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네 편의 작품 속에 창조된 여주인공들의 성격을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미흡하지만, 인물의 가족관계와 작품 주제 및 배경 등과 연결시켜 설명하려고 한다. 가족관계의 항목에서는 이름, 나이, 성격, 가족관계를 비교하고, 배경의 측면에서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그리고 상황적 배경이 주요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네 편의 소설 속의 등장하는 여주인공에 대한 비교 고찰 내용은 다음의 “표2. 연구대상 소설 비교분석”표로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편 『나무』의 여주인공 이름은 이경(경아라 불림)이다. 이 소설은 그녀의 나이 21세의 처녀시절을 출발점으로 하여 몇 년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 끝을 맺는다. 가족관계는 부모와 오빠 2명이 있는데, 아버지와 오빠 두 명은 전쟁으로 모두 잃는다. 그리고 이경의 성격은 생활력이 강하여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냉소적이면서도 강인한 생활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기도 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는 여주인공 이름은 차문경으로 이혼당하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인물이다. 미혼모임이 밝혀지면서 교사를 그만 두게 되지만,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일하는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준다. 그녀는 개인과 사회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의 이기적 행동의 소유자로 합리적이고 현실지향적인 행동으로 삶을 이끄는 힘이 강한 예고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는 여주인공은 독립된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3인칭 대명사인 ‘그녀’로 호칭된다. 초로의 노인인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남편과 아들, 딸이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빈정대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부자 사돈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자식들에게서 조차 무시당하는 듯한 사건 이후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을 회복하는 인물이다.

『그 남자네 집』에서의 여주인공은 1인칭인 ‘나’로 표현되고 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옛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낭만적인 면도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며 개인과 사회관계 속에서 양심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이다.

다음은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소설에서 배경이 중시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리얼리즘의 대두로 인하여 작품에서의 사실적 묘사가 중시되면서부터 배경은 소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단순한 보조적 기능으로 존재하던 배경이 작품 구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 대두된 것이다. 로버트 스탠톤(Robert Stanton)은 소설의 배경은 작품들의 환경,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계로서, 그것은 가시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적·역사적 배경이나 기후도 될 수 있으며, 인물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것은 주로 묘사적 구절을 통해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했다.⁷⁷⁾

네 편의 배경과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나무』는 1950년대 서울 명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쟁과 죽음을 상황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전쟁 중이라는

77) 송명희(2006), 전계논문, p.168.

배경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열망과 또 그에 따라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도덕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여주인공이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학교와 재판장을 주요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 생활과 재판과정을 상황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교와 재판장, 놀이방, 시장 등의 배경은 권리, 제도, 아이 양육문제, 생존 등을 위한 사회 제도의 모순에 맞서서 도전하고, 대항하는 등의 주인공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1970~19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졸업식과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식이나 졸업식장이란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노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가족과 부부의 관계를 위하여 여주인공이 취하여야 할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

『그 남자네 집』은 6.25전쟁 전후 서울 돈암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 전후의 기억으로 첫사랑에 대한 열정을 상황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사랑이 있지만 전쟁 전후의 상황으로 보아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현실을 수용하게 하는 여주인공의 성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소설의 주제와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소설의 주제란 작품 속의 소재를 다루어 나가는 통일 원리로서, 작가의 뜻이 형상화되어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사상이요, 핵심적인 의미를 말한다. 한 마디로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중심생각이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며, 작품 내용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제의 중요성을 퍼시 러보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소설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존재하는 것은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발견할 능력이란 그 작가의 기초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작가는 아무 손댈 곳을 모른다. 주제는 소설의 시초요 전체다. 주제에 의하지 않고는 소설은 그 형태를 이룰 수 없다.”⁷⁸⁾

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네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주제를 살펴보면, 우선 『나목』의 주제는 남아선호 사상을 비판하며, 전후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덕과 삶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주제는 가부장제의 모순과 여성성 회복,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주제는 연민과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남자네 집』은 첫사랑의 추억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명명한 성격의 유형을 요약하면, 『나목』의 여주인공은 남아선호 사상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도덕을 중시하는 등 자신을 지켜나가는 꾀꾀한 행동을 보인다. 반면, 어머니를 제외한 주변 인물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성격으로서 외유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와 부딪히며 반항하면서도 어머니를 측은해 하는 모습에서도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은 모순된 사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혼자 힘으로도 노력하는 도전·쟁취형이라 할 수 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은 가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늙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가여워하는 연민 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상황에 따라 많은 생각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면서 의식하고 행동하는 수용 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자에 따른 인물 유형을 비교분석해 보면,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입체적이고, 전형적이며 정적, 폐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은 사회의 모순된 제도와

78) 송명희(2006), 상계논문, p.233.

관습 등에 대하여 일관된 모습으로 이를 개선하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모습은 개성이 강한 평면적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자신과 인생의 진리 발견을 위해 천성대로 행동하는 발전적이고 사회의 모순된 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적극적으로 모순을 제거하고 새 질서를 향하여 목적을 추구하는 진보적 인물이라 하겠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그녀’는 입체적이며,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당시의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발전적이며 진보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자기 생각대로 개선하거나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행동으로도 보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에서 전형적이며 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을 찾아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박완서의 작품세계는 초기에는 비판적이거나 풍자적 시선으로 포착된 부정적 세계의 모습 쪽이 우세하고, 현재에 가까워올수록 포용적이고 넉넉하고 긍정적인 상호이해의 모습이 우세하다. 또 표현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예각적이고 드라마틱한 과장이 많았던 것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달라지는 것은 양상일 뿐이며 작품마다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은 시기와 상관없이 한결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대상 소설의 성격 비교분석표

작품 제목	나목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남자네 집	
여 주인공	이름	이경(경아라 부름)	차문경	그녀(제3인칭)	나
	중심 나이	21세~40대	35세	60대	20대~70대
	가족 관계	부모, 오빠 2명	남편(이혼), 아들	남편, 아들·딸	남편, 시어머니
	성격	생활력이 강함 냉소적인 성격 주변인들에게 따뜻함	일하는 여자의 당당함, 애고적 성격	마음이 여립, 정에 약한 성격	낭만적인 성격 수피에 고적 성격
주요인물	어머니, 욱희도, 황태수, 조오	김혁주, 황여사, 정애숙	남편, 딸 채정, 아들 채훈, 사돈	현보, 전민호	
배경	공간 배경	서울 명동	학교, 재판장	서울	서울 돈암동
	시간 배경	1950년대	80년대 6월로 시작	1970~80년대	6.25전쟁 전후, 현재
	상황적 배경	전쟁, 죽음	학교 교사생활 재판 과정	졸업식, 결혼식	전후의 기억으로 인한 첫사랑의 열정
주제	남아선호사상 비판, 도덕과 삶에 대한 열망	가부장제 모순과 여성성 회복	연민과 가족의 소중함	첫사랑의 추억과 생존의 몸부림	
이 논문에서 명명한 성격유형	외유내강형	도전·쟁취형	연민형	수용형	
학자들에 따른 인물 유형 비교	입체적, 전형적, 정적, 폐쇄적 성격	평면적, 개성적, 발전적, 진보적 성격	입체적, 개성적, 발전적, 진보적 성격	입체적, 전형적, 정적, 보수적 성격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박완서는 소설 작품의 주인공 대부분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목』과 『그 남자네 집』 두 작품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후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두 작품은 여주인공을 통해 금권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가족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회 제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모순들까지 고발하는 문제의식을 함유하고 있다.

강인숙은 박완서의 소설세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 히로이니즘(heroinism), (b) 사건의 일상성, (c) 여성적 감성의 민감함과 섬세함, (d) 풍속 묘사의 탁월함, (e) 디테일 묘사의 정밀성 등의 특징으로 보아 전형적 여성 양식의 소설가이지만, 그녀에게서는 낭만적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환상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보봐리즘 대신에 박완서는 “풍차를 풍차로” 직시하려는 리얼리스트로서의 안목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⁷⁹⁾(각주 달 것)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남녀 관계는 대부분 애인이 아니라 부부관계로 설정된다. 그것도 사랑과 화합의 관계보다는 갈등과 불화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양식(female mode)’을 모계문학으로 규정짓는다. 그에 의하면, 박완서는 모계문학의 전형일 뿐 아니라 가장 세련된 양식의 모계 문학의 작가이다. 박완서의 문학은 여성중심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성적 양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완서는 <조침문>이나 <한중록>의 중세적 전통을 이어받은 작가⁸⁰⁾로 평가한다.

이렇게 볼 때, 박완서의 인물들은 전쟁 체험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 중류가정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은 작품의 주제와도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외유내강형 이경은 전 후 상황에서도 도덕을 중시하던 한국 여성들의 전형성을 띠고 있으며 젊은 나이이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당시의 많은 한국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 연민형의 ‘그녀’는 한때 한국의 여성들이 허영과 물질 만능주의에 심취되어 도시로만 나가려던 당시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남자네 집』의 수용형의 ‘나’는 젊은 나이에 전쟁을 겪었을 여성이

79) 강인숙(1997),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등지, pp.188-189.

80) 강인숙(1997), 상계서, pp.188-189.

었다면,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며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여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도전·쟁취형인 차문경 같은 인물들로 인해 지금까지 여성에게 불리했던 사회 제도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여성문제들을 다룬 박완서의 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모순된 가부장제 등 여성 차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 인물들이라고 보아지며, 이 인물들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그들을 통해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 작가의 문학관, 전반적인 작품세계 등을 분석하고 시대별 작품 속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격을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시대별 여주인공의 성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박완서 문학을 통해 한국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정립하여 여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대상을 박완서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시대별로 여성문제가 표출된 작품과 주목을 끌었던 작품을 선정하여 보았다.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그의 소설세계의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관점을 고찰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상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박완서의 초기작인 『나목』에서부터였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 내포된 남아선호사상의 사회적 인습과 그 부당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나목』은 전쟁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주인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까지 주목하고 있다. 즉 한 여성이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6.25라는 전쟁을 겪으며 어머니로 대표되는 남아선호 사상의 사회적 인습과 만남 그 부당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저항하는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폭발성을 포함한 순수함이 구김 없이 드러난 이를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그려낸 ‘전쟁과 청춘의 소설’로 되새겨지고 있다. 『나목』에서 보여주듯이 작가 자신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다. 그 속에서의 부당한 인식이 『나목』을 낳았으며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여성소설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기를 거쳐 작가 자신 스스로 본격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었다고 보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가 탄생되었다. 여기서 그는 부덕과 미풍양속으로 미화되고 은폐되어 있는 남성의 부당한 우월주의를 고발하였으며 더 나아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꾸며지는 가정 내에서의 모순을 풀어 가는 세대간의

변이양상을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여성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성(性)이라는 내면적 모순까지 고발함으로 확대시켰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여주인공 ‘그녀’를 통해 촌스럽고 고지식한 남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연민을 갖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기들만을 우선하고 부자인 처가와 시댁의 구미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딸과 아들을 보면서 가족관계의 모순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한다. ‘그녀’는 노년기의 쓸쓸함과 허전함을 느끼지만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며 따뜻한 사랑을 내비치는 남편을 보면서 노년의 삶도 긍정하게 된다.

『그 남자네 집』은 여주인공이 돈암동으로 이사 간 후배네 집에 방문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아주 어렵듯이 간직하고 있는 현재의 돈암동 모습을 보면서부터 옛 일을 생각한다. 젊은 날 자신을 ‘구슬같은 여인’으로 만들었던 첫사랑의 주인공이 있던 그 남자네 집을 기억해내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전쟁 중에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여주인공은 ‘연애’를 한다. 첫사랑과의 연애. 여주인공은 첫사랑인 그 남자와의 추억이 작품의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네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주인공의 성격 유형에 대하여 필자가 명명한 성격 유형은 『나목』의 여주인공, 이경은 외유내강 형이라 볼 수 있으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은 도전·쟁취 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그녀’는 연민 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수용 형이라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필자가 명명한 여주인공의 성격에 대하여 학자에 따른 인물 유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입체적이고, 전형적이며 정적, 폐쇄적 인물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은 평면적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으며, 발전적이고 진보적 인물이라 하겠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인 ‘그녀’는 입체적이며,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발전적이며 진보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는 입체적이며, 전형적이고 정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논의 되지 못했던 소설 속의 인물 즉 여주인공에 대한 성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단계별로 진행된 여성문제와 여성 정체성의 발견과정을 논의할 수 있었으며, 작가가 나타나고자 한 창조의 성격도 도출시키려고 노력해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필자가 명명한 성격 유형에서 『나목』의 여주인공인 이경은 외유내강 형으로서 6.25전후 시대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도덕성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여주인공 차문경의 도전·쟁취 형은 ‘80년대 우리나라의 모순된 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개혁을 위하여 여성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여주인공 ‘그녀’의 연민 형은 해마다 높아가는 이혼율, 가족의 해체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노년기의 여주인공인 그녀를 통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남자네 집』의 여주인공 ‘나’의 성격인 수용 형은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첫사랑을 회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활력소를 만들고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네 편을 통하여 여주인공에 대한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별로 나타난 소설 주제 등에 따른 전체 내용들을 인식하면서 여성들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박완서의 네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주인공에 대한 성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대별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작품들은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낡은 부정과 부조리, 가치관 혼란에 대한 작가의 현실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품 양상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차츰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여성문제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그의 소설 세계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녀의 소설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 노인의 생활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애정을 보인다. 이는 작가가 생애 대한 연민과 따뜻한 인간애를 소설로 그려냄으로써 그녀의 소설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두면서 지속적인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첫째, 박완서의 많은 소설 중 네 개의 소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작품을 텍스트로 포함시켜 보편적인 성격 유형을 추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둘째, 방법론에 대한 한계도 안고 있다. 총체적인 성격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인물의 성격유형 분석에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을 것임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 박완서(1990), 『나목』, 작가정신.
_____(1989),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_____(1998),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 비평사.
박완서외(1998), ‘너무도 쓸쓸한 당신’, 『98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_____(2004),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 단행본

- 강인숙(1997),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등지.
구인환(1996), 『소설론』, 삼지원
권명아(2004), “엄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권영민(2006),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대학사.
김경수(1994), 『문학의 편견 : 김경수 평론집』, 세계사.
김기숙(1994), “박완서 소설연구 : 현실반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식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김동식(2003), 『소설에 관한 작은 이야기』, 문학동네.
김만수(1994), 「문학의 존재영역 : 김만수 평론집」, 세계사.
김명호(1990), “여성해방 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김미현(2001), 『관도라 상자 속의 문학』, 민음사.
김윤식(1995), 『김윤식의 소설 읽기』, 열림원.
_____(1997), 『김윤식의 소설 현장비평』, 문학사상사.
_____(1998), “박완서와 박수근 : 고목에서 나목에 이르는 길,” 『박완서 :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8』,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현주(2004), “<발언>의 정신과 새로운 문화·도덕의 형성,”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 김화영(1998), 『'98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
- 노드립 프라이(Northrop Frye),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1957),
임철규 역, (2000), 도서출판 한길사.
- 박완서(1992),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 백지연(2004), “폐허(廢墟) 속의 성장,”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 서영채(2005), 『서영채 평론집』, 문학동네.
- 송 먼(1985), 『소설미학』, 문학과 지성사
- 송명희(2006),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사상사.
-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Cornel,1978)」, 김경수 역(1990), 민음사.
- 신철하(2004), “이야기와 욕망,”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
사.
- 안성수, 『소설서사의 논리와 방법』, (미발표원고).
- 양진오(2003), 『전망의 발견 : 양진오 평론집』, 실천문학.
- 우찬제(2004), “<미망(迷妄)><미망(彌望)><미망(未忘)>, 그 상호텍스트성 : 박완서 「미망」 읽
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 윤병로(1993),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의 승화,” 『박완서 문학상 수상작품집』, 훈민정
음.
- 이경호·권명아(2000), 『박완서 문학 길찾기 :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 이광훈(1980),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뒷,” 「현대문학」.
- 이동하(1991),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박완서론」, 삼인행.
- 이선영(1998),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박완서 :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8』, 서
강대학교 출판부.
- E.M.FORSTER(1927), 『소설의 이해(ASPECTS OF THE NOVEL)』, 이성호 역(1975), 문예
출판사
- 이태동(1997),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 『한국문학연구 제19집』, 동국대학교 한
국문학연구소.

- 임규찬(2004), “박완서와 6.25 체험 :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 임옥희(2004),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 조남현(1982), 『소설원론』, 고려원
- C. Carter Colwel, (1968), 『문학개론(A Student's Guide to Literature)』, 이재호·이명섭 역 (1991), 을유문화사
- 하용백(1992), “여성의식의 응축과 확산,” 「문학정신」.
- 황광수(1985),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 황도경(1999),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 지성사.
- 홍성암(1996),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3. 논문

- 강경숙(2003), “박완서의 페미니즘소설 연구 : 80년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명희(2002), “소설 텍스트 활용을 통한 표현교육 연구 :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보영(2000), “박완서 소설 연구 : 주로 그의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예니(2004), “여성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 박완서·오정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종희(1999), “박완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주(2003),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 여성적 언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나소정(2001), “박완서 소설연구 : 도시문명과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문남순(2004),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글쓰기와 다시쓰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희(2003), “박완서 소설의 여성인물 정체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미(2000), “박완서 소설의 여성문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안관진(1999), “박완서 장편소설연구 :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송아(1999),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광민(2002), “박완서 소설 연구 : 도시체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관민(2002), “박완서 소설 연구 : 도시체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은하(1999), “박완서 소설 연구 :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임현미(2005),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문숙(2003), “박완서 소설의 근대적 여성성,”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영우(2002),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 주제적 양상에 따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전창호(1992), “여성의 글쓰기와 자기발견의 서사구조,”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조윤희(2002), “박완서의 페미니즘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최두연(1999), “박완서 소설 연구 : 산업사회의 변동과 소설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상희(1999), “박완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초영((2001), “박완서 소설연구 :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윤주(1995), “박완서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지화(2001),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박완서 소설 연구 : 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Abstract>

Study of Heroines' Personalities in Park Wan-Seo's novels

Jung, Ae-Kyoung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heroines' personalities in Park Wan-Seo's novels. His novels 『Bare tree』, 『You, have you still been in a dream?』, 『You who are too much lonely』 and 『That man's house』 were published at intervals of 10 years and were the texts us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examines directions that women should follow after renewing and reestablishing Korean women's identity through Park Wan-Seo's novels.

With this aim, the author took advantage of Seymour Chatman's "paradigm of characteristics" analysis techniques and selected paradigm classification as the criteria for judging personalities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characteristics that are "relatively stable and lasting personal qualities".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heroine of 『Bare tree』, I-Kyoung was analyzed as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character type, Cha Moon-Kyoung of 『You, have you still been in a dream?』 was considered as

challenging and obtaining type, 'she', the heroine in 『You who are too much lonely』 was the sympathetic type and 'I', heroine of 『That man's house』 was analyzed as the passive/receptive type. Whether or not characters become a distinct example that is free from the influence of one another was checked by comparing the ways of creating heroines' personalities and the features of personality patterns in these four works. Thus it was concluded that heroines' personalities of Park Wan-Seo's novels are not independent but have a format in which some parts or the whole of the four character patterns are mixed or amalgamated. These facts can be seen as proof that her characters were materialized from the examples of Korean women in the traditional contexts.

Therefore Park Wan Seo suggests a desirable image of women in her own way through developing female images in her novels through cynical characteristics with full vitality, an egoistic woman of lofty bearing, a fainthearted and sympathetic woman and romantic and super-egoistic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 pursues a progressive human ideal in which people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of the times, while admitting given conditions and conservative tradition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